

# DDC의 패싯구조에 대한 연구

## -생명과학과 문학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Facet Structure of Life Science and Literature in DDC

정 해 성 (Hae-Sung Chung)\*

#### 〈목 차〉

- |  |  |
|--|--|
| I. 서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연구의 배경</li> <li>2.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li> <li>3. 연구의 방법과 한계</li> </ul> | III. DDC의 패싯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생명과학의 패싯구조</li> <li>2. 문학의 패싯구조</li> </ul>                          |
| II. 패싯구조의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패싯의 정의</li> <li>2. 패싯구조의 역사</li> <li>3. 패싯구조</li> </ul>   | IV. DDC와 CC의 비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생명과학의 비교</li> <li>2. 문학의 비교</li> <li>3. DDC에서 수용해야 할 요소</li> </ul> |
|  | V. 결론  |

#### 초 록

본 연구는 열거식 분류체계가 조합식 체계로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고 앞으로의 방향을 전망해 보기 위하여 열거식 체계로 시작된 DDC가 수용하고 있는 조합식 체계를 중심으로 패싯구조에 대한 일반적인 이론을 고찰한 다음, 패싯 구조로 변화한 DDC 21판의 생명과학과 초판부터 패싯구조를 갖고 있는 문학을 대상으로 패싯구조를 분석하고 이를 CC의 해당 주제와 비교하여 DDC가 수용해야 할 요소를 제안하였다.

#### Abstract

This study intends to : 1) confirm the possibility to transform the enumerated scheme into the faceted scheme, 2) review general theories on facet structure employed in DDC of the enumerated scheme, 3) analyze the facet structure of life science and literature in DDC, and 4) comparison of the facet structure of life science and literature in DDC and CC. This Study suggests following conclusions.

1) CC follows thoroughly the classification principles by Ranganathan, but all classification theories are not properly applied to DDC yet. 2) Because DDC does not have any formula to classify the compound subject, but has to follow the compounding methods presented in each subject, its facet structure is too complicated. 3) DDC has transformed the entire system into the facet structure through its revision. Especially the life science transformed into the facet structure employs the facet indicators and applies them to all the systems in life science. But the notations have sometimes twofold meanings, and no ability to differentiate the meanings in the same notation. When DDC follows the classification method by facet, the number of items for classification so limited that it is difficult to array the subdivision and that length of notation becomes longer and longer.

\* 대구효성가톨릭대학교 도서관학과 교수

## I. 서 론

### 1. 연구의 배경

전통적으로 정보검색에서 주제접근 방법으로는 분류표를 사용하는 방법과 주제명표목, 시소러스와 같은 표준화된 용어를 사용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분류표는 지식구조를 체계화시키는데 사용되며, 지식구조의 발전 양상에 순응하고 있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계층분류표와 패싯분류표의 종류가 있는데 대부분의 도서관에서는 열거식으로 된 계층분류표를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분류체계에 패싯의 개념을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18세기에 불란서의 콩도르세로서 당시의 학문분야를 조직하기 위하여 패싯 분류를 고안한 것인데(Whitrow 1983), 이를 이론적으로 체계화시킨 것은 랑가나단이라고 하겠다.

즉 1933년 랑가나단의 콜론분류표(Colon Classification : CC)에서 패싯 구조를 사용한 이후 1960년대 이후부터는 미국국회도서관분류표(Library of Congress Classification : LCC)를 제외하고 모든 분류표에서 부분적으로 또는 전체적으로 패싯 구조로 재편되고 있으며, 미국국회도서관의 주제명표(Library of Congress Subject Headings)의 세목도 패싯 구조로 변화되고 있다(Taylor 1992, 322; Aitchison and Gilchrist 1987, 57).

듀이십진분류표(Dewey Decimal Classification : DDC)에서도 모든 주제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서지형식과 서술형식, 시대, 장소 등의 패싯을 도입하여 합성주제를 표현하는데 패싯기법을 도입하였다(Taylor 1992, 320). 1905년에 출판된 국제십진분류표(Universal Decimal Classification : UDC)도 역시 패싯 구조의 요소를 가지고 있으며, 개정 과정에서 랑가나단의 이론을 반영하고 있다(Foskett 1996, 349; Vickerly, 1966, 12-14).

랑가나단의 이론은 20세기에 나타나는 여러 분류표에 영향을 미쳤는데, 특히 E. J. Coats가 영국국가서지(BNB)를 편찬하는데 사용하기 위한 British Catalogue of Music Classification을 완전 패싯 분류표로 고안하여 음악자료의 분류에 사용하였고, 이 체계는 DDC의 음악류의 개정과 서지분류표(Bibliographical Classification : BC)를 개정하는데 영향을 주었다. DDC 21판(1996)의 생명과학(570-599)과 행정학(351-354)은 패싯 구조를 도입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BC 2판도 완전한 패싯 구조를 채택하고 있다.

최근에는 인터넷상에서도 선택된 정보자원을 조직하고 검색하는데 기존의 분류표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인터넷에서 분류표를 사용하는 것은 용어 검색과 병행하여 검색의 범위를 확장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주제의 대소나 검색 용어와 관계없이 자료에 접근할 수 있으며, 브라우징의 범위를 확장할 수 있으며 기존의 분류체계에 익숙해져 있는 이용자들에게는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는 기회를 제공하게 되는 장점을 기대할 수 있다.(Koch 1977)

## 2.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도서관의 자료를 서지적인 특징에 따라 분류하던 서지분류의 방식은 1876년 멜빌 뉴이가 자료의 내용(주제)에 따라 계층적인 체계로 구분한 열거식 분류표를 발표하면서 서가분류 방식으로 변화되기 시작하였다. 이를 계기로 분류체계는 빠르게 성장하는 지식세계와 급격히 증가하는 도서관의 장서를 조직하기 위하여 발전하기 시작하였다.(Koch 1997)

뉴이의 분류표가 발표된 이후 현대적인 분류체계가 많이 발표되었는데, 이들을 구조적인 면에서 대별해 보면 열거식 분류표(Enumerative scheme)와 조합식 분류표(Faceted scheme, 또는 Analytic-Synthetic scheme)로 구분된다. 전자는 일정한 지식 영역을 설정하고 이를 하위 유로 계속 구분하여 계층구조(hierarchical relation)를 제시해 주는 체계이고, 후자는 일정한 지식 영역을 특정한 구분원리를 기초로 하여 몇 개의 요소주제로 분석한 다음 얻어진 요소주제를 다시 일정한 공식으로 합성하는 방식을 사용하는 것으로, 지식을 일일이 열거함으로써 오는 분류표의 방대함을 방지하고 복합주제의 표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체계이다.

(Ranganathan 1967)

오늘 날 연구영역에서 필요로 하는 정보의 범위가 학문영역 전체로 확장되고 있고,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보다 훨씬 광범위한 새로운 지식이 생산됨으로써 이를 이해하고 자신의 지식 체계 속에 통합하는 것이 더욱 어렵게 되었다. 새로운 주제는 기존의 학문으로부터 분열되어 파생되는 것만이 아니고 기존의 특정 학문들이 통합되어 출현되기도 한다. 따라서 전통적인 열거식 방법에서는 지식의 계층관계만을 표현하므로 지식에 포함된 개념간의 관계를 적절히 표현하지 못하고 학제적인 주제나 기존의 주제간의 상관관계의 변화도 수용하기가 어렵게 되었다.

분류표에서는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대부분의 주제를 열거하고 있다. 그런데 열거식 분류표에서는 주제의 결합방식이 직선적이어서 주제간의 관계 표현이 불완전하다. 즉 열거된 하위 구분지가 불완전하고, 분류기호의 조합 방법도 제한되어 있고, 조합의 순서도 준수되지 않으며 본표에 나타나는 동일한 패싯 안에서의 열거순서도 체계적이지 못해 모든 주제(단순주제, 복합주제, 합성주제)를 표현하는데 한계를 지니고 있다. DDC도 초판부터 주제간의 결합 구조를 도입하였는데, 특히 여러 주제 아래 동일한 표현형식(form of presentation)을 열거하는 것은 구조적인 약점으로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서지형식, 시대, 장소 등의 형식구분표(form divisions)를 마련하여, 어느 주제와도 조합할 수 있도록 하였고, 17판(1965)에서는 지리구분(Dewey 1965, 22-23), 18판에서는 다섯 개의 보조표(Dewey, 1971, v.1. 375-439)를 추가하고, 또한 본표 안에서 여러 가지 합성지시에 의한 조합 기법을 사용하여 점차 조합식 구조 요소를 수용하게 되었다.

특히 DDC 21판의 생명과학(570-590)과 행정학(351-354)분야에서는 주제를 전개하는데 패싯

#### 4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 30권 제 3호)

기호와 기호의 합성을 위한 패싯 구조의 도입을 설계의 기본으로 하였다.(Dewey 1996, 1 : xx, 4 : 1057, 1114-1118)

따라서 본 연구는 열거식 분류표의 조합식 구조로의 변화 가능성을 확인하고 앞으로의 변화를 전망해 보기 위하여, 패싯 구조를 도입한 생명과학과 문학의 패싯구조를 분석해 보고 이를 CC의 해당 주제와 비교 검토하여 DDC에서 수용해야 할 패싯 구조의 요소를 제안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3. 연구의 방법과 한계

이상의 목적을 위해 본 연구는 패싯 구조에 대한 이론은 관련 문헌을 중심으로 검토하였으며, DDC와 CC의 비교는 DDC 21판(1996)과 CC 7판을 가지고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대상 주제를 문학과 생명과학 분야로 한정한 이유는 DDC 21판에서 패싯 구조로 개정된 생명과학, 행정학 중 행정학을 제외한 것은 CC에서 규범류인 행정학을 따로 전개하지 않고 정치학(W)의 하위 구분인 행정학(WT)으로 배정만하고 이에 대한 하위 패싯이 제시되어 있지 않아 비교할 수가 없었고, 문학을 포함시킨 것은 DDC에서 이 주제가 초판부터 패싯 구조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 II. 패싯 구조의 분석

조합식 분류표의 기본 구조는 모든 유형의 주제를 분류표에 일일이 열거하는 대신, 지식의 각 분야를 어떤 분류특성을 기초로 하여 패싯이라는 기본 요소로 분석하고, 공통 구분표와 특수 구분표만을 작성하여 기본주제와 공통구분표 및 특수구분표의 기호를 결합하여 합성주제나 복합주제를 구성하게 된다. 조합식 분류표는 분류의 연속적인 과정에서 일어나는 분석과 합성이라는 과정을 중시하여 분석합성형 분류표라고도 한다.(Ranganathan 1987, 8)

따라서 조합식 분류표는 새로운 주제의 출현시 이를 쉽게 표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즉 전통적인 열거식 체계보다 개념을 자유롭게 결합함으로서 다양한 주제를 특정하게 표현할 수 있어, 지식의 변화를 쉽게 수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새로운 주제라는 것도 이미 표현된 기본 개념을 새롭게 조합함으로서 대부분 표현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 1. 패싯의 정의

자료분류는 기본적으로 주제를 기준으로 한 분류로서, 주제 분석(subject analysis)은 모든 분류과정의 가장 기본적인 단계이며 이 분석단계에서 사용되는 패싯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패싯(facet)이라는 용어는 기술적인 용어(technical term)로서 ‘관점’이나 ‘범위’, 혹은 ‘특성’을 의미하는 말이다(Ranganathan 1967, 88). 주제는 하나 이상의 관점을 가질 수 있다. 예컨대 ‘교육’이라는 주제를 ‘초등교육’, ‘교과과정’과 같은 관점에서 볼 수 있다. 여기서 교육은 주류이고, ‘초등교육’이라는 관점은 교육 수준에 기초한 것이며, ‘교과과정’이라는 관점은 교육의 문제에 기초한 것이다.

이처럼 관점이나 특성에 기초하여 하나의 주제를 하위개념으로 구분하여 얻은 전체 하위 구분지를 패싯이라고 한다. 그런데 패싯이나 관점, 혹은 특성은 주제마다 고유한 것이다. (Khanna 1986, 65)

랑가나단에 의하면 각각의 기본주제(또는 기본류)는 하나의 특성계열(trains of characteristics)에 기초하여 다수의 기본 범주로 구분되고, 이 범주를 패싯이라고 한다.(Ranganathan 1962, 56) 따라서 패싯이란 한 주제 내에서 하나의 특성을 구분의 기준으로 적용하여 생성된 하위요소들의 집합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분류표에서는 패싯 분석을 위한 일련의 특성을 설정하고 있다. 예컨대 CC에서는 핵심주제(Personality : P), 재료(Matter : M), 에너지(Energy : E), 공간 (Space : S), 시간 (Time : T)의 다섯 가지 기본범주를 사용하고 있으며, Foskett(1996, 154)는 사물의 전체, -유형, -부분, -물질, -속성, -과정, -(사물에 대한) 작업, -행위의 주체, -장소, -시간과 같은 범주를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주제나 설계자에 따라 기본 범주를 달리할 수 있다. CC의 기초는 특정 주제에서 그 주제를 구성하는 하위 요소(패싯)를 분석하는 것이다. 즉 패싯은 열거식 체계에서 모든 주제를 유별하는 것과 같이 모든 주제를 핵심주제, 재료, 에너지, 공간, 시간 등의 하위 범주로 분석하고 이를 일정한 공식에 따라 합성하는 것이다. CC에서는 각 개념들이 상이한 패싯아래 배열되고 기호단계에서 합성이 이루어진다. 특히 공간과 시간 범주와 같이 여러 주제에 공통적으로 출현할 수 있는 범주는 모든 주제와 합성이 가능하다. 따라서 대부분의 분류표들이 이 기법을 도입하고 있고 분석 합성식 분류체계에서는 모든 주제에 대한 합성이 가능하다는 정이 성립된다.

## 2. 패싯 구조의 역사

패싯 구조의 아이디어는 1930년대에 랑가나단에 의해 체계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 패싯 구조에 관련된 원칙들은 가장 강력하고도 영향력 있는 원칙들로 주제 분석의 기초가 되고 있다.(Chan, Richmond & Svenoijus 1985, 86-87)

그러나 분류표의 구성이나 분류업무에 패싯의 개념을 도입한 것은 실제로 랑가나단이 아니라 18세기에 불란서의 콩도르세가 학문 분야의 목표와 사실에 대한 정보 조직을 위하여 패싯 구조를 사용하였다고 하는 지적도 있다.(Whitrow 1983, 88-94)

콩도르세(Condorcet 1743-94)는 불란서의 수학자, 철학자, 정치가로 학문 분야의 관련된 내용을 분석하는데 5가지의 범주를 사용하고 각 범주아래에서는 다시 1부터 9까지 세분해 나가는 방법으로 분류 체계를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이는 학문분야의 체계를 나누는데 사용한 것이지 자료 분류를 위한 패싯 분류는 아니었다.

패싯 분석의 가설과 규범에 근거를 둔 CC는 기본적으로 패싯을 다섯 개의 기본범주로 구분하여 이를 CC 4판부터 적용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Devadason 1986, 132)

DDC에서도 패싯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즉 모든 기본 류에 서지 형식, 시대, 장소, 그리고 일반 주제와 같은 4가지 일반 패싯이 있는 것을 인정하고, 복합주제를 들 이상의 패싯을 합성하여 표현하도록 하였다.(Taylor 1992, 320)

UDC에서도 역시 패싯 요소를 가지고 있으며 기본범주에 기초한 패싯 분석 방법은 1950년대와 60년대에 영국과 유럽에서 패싯 분류표와 새로운 색인 용어의 발전을 가능하게 하였다.(Devadason 1986, 134)

BC 2판에서는 보다 엄격하고 일관성 있게 패싯 구조를 도입하였으며, 보조표(공통 구분)와 상관계를 사용하여 개념을 합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본표와 보조표들은 개념들을 패싯으로 구분하여 조직하고 있다.(정영미 1997, 74)

브리스의 분류이론에 영향을 받은 랑가나단은 DDC가 분류도구로서 낡고 부적절하며, 비과학적이고 이론적인 배경이 제시되어 있지 않은 무원칙한 실무 차원의 분류표로 인식하였다.

특히 어떤 자료가 다양한 측면을 나타낼 때 경우에 따라 주제의 특정 측면을 나타낼 수 없는 문제, 미래에 출현될 모든 주제들이 더 많은 합성개념을 가질 경우 이를 나타낼 수 없는 문제, 모든 주제를 망라적으로 열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를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이상적인 분류표를 개발하고자 시도하여 패싯 분류기호와 주제분석 기법을 적용 한 CC를 제안한 것이다.(Ranganathan 1987, 3)

랑가나단은 자료라는 것이 지식을 구체화시킨 것이고 지식의 성장과정을 이해하는 것이 분류자에게는 필수적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지식의 성장과 새로운 주제의 출현과 관련된 분류이론을 발표한 것이다.

### 3. 패싯 구조

지식세계의 발전과정이 빠르고, 새로운 지식분야가 지속적으로 출현하면서 현존하는 주제의 합성기법이 요구됨에 따라 패싯 구조의 도입이 고려되기 시작하였다. 이는 기존의 분류체계를 가지고는 모든 주제를 모두 표현할 수 없고, 새로운 분야의 지식을 수용하기 어렵고, 미래에 출현할 수 있는 주제를 수용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패싯 구조는 분석과 합성의 두 과정을 포함하는 말이다. 분석은 하나의 주제분야를 본질적인 특성에 따라 기본범주로 구분하는 것이고, 합성은 이를 범주에 포함된 개념을 결합하여 특정 주제를 표현할 수 있도록 조합하는 것이다.(Ranganathan 1962)

모든 분류 체계는 주제 분석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므로 전통적인 열거식 분류표에서도 주제를 논리적 구분원칙에 따라 하향식 분석방법을 채택하고 있으나 조합식 분류표에서는 논리적 구분방식을 택하지 않고 상향식 귀납적인 분석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비커리(B. C. Vickery)는 패싯 분석 기법을 사용하는 분류 체계가 전통적인 분류체계와 다른 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즉 규칙적용이 엄격하게 이루어지며, 패싯의 자유로운 합성이 가능하며, 복잡한 지식 구조의 표현이 용이하다는 점을 들고 있다.(Vickery 1966, 16-17)

#### 1) CC의 패싯 분석

CC에서 패싯 분석의 첫 번째 단계는 자료의 주제를 구성요소인 기본범주로 분석하는 일이다. 그러나 이보다 앞서 해당 범주가 그 주류나 규범류의 틀 속에 존재하는지를 확인하여 그 주제가 속하는 주류를 결정해야 한다. CC에서 개개의 주제는 하나의 주류에만 배정되고, 각 주류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어떤 공식도 도움이 되지 못한다.

실제 분류에서 합성주제나 복합주제의 순서는 미리 정해진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이용자에게 유용한 순서의 원칙을 적용한다. 더욱이 심층 수준에서 주제의 순서뿐만 아니라 모든 주제에 속하는 패싯의 순서에도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으며 심지어 특정 패싯에 속하는 구분지 개념의 계층에 사용된 특성 순서까지도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다. 이 원칙에 기초하여 주제를 분류하게 되면 패싯에 관한 사전 지식 없이도 분류가 가능하여, 결과적으로 완전한 패싯 분류가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Ranganathan 1967, 397-412)

#### 2) 패싯 순서의 원칙

조합식 체계는 패싯 공식 또는 패싯 순서라고 부르는 패싯의 열거순서 또는 어떻게 패싯들이 표현되는지에 대한 규칙이 마련되어 있다. 이들 패싯 공식에서의 각 범주의 열거 순서는 각 주제 분야의 구체성 또는 중요성에 따라 순위가 매겨진다. 열거순서는 구체성 증가 원리와

## 8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 30권 제 3호)

같은 주제의 배열원리에 따라 열거되어 있다. 따라서 패싯 공식은 복합적인 주제를 일관성 있게 표현하기 위하여 매우 중요하다.

Mills(1962)는 열거순서에 관한 세 가지 일반적인 원칙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 ① 랑가나단의 CC에 반영된 구체성 감소 순서의 원칙으로서 가장 구체적인 개념을 우선하는 방법
- ② Bliss(1933)가 사용한 교육 및 학문적 합의 원칙으로서 주제가 어떻게 연구되는지에 따라 순서를 정하는 방법
- ③ 목적에 따른 원칙으로 문헌정보학에서의 정보서비스와 같이 특정 주제분야의 연구목적을 나타내는 최종 생산물이 가장 먼저 오도록 하는 방법

BSI(1963)에서 열거하고 있는 패싯의 열거순서에 관한 일반원칙은 다음과 같다.

- ① 학문분야의 합의에 따라 주제의 인용순서를 정한다.(예 : 언어학-영어-전치사)
- ② 구체적인 요소가 선행한다. 따라서 특정 사물은 그 사물의 속성이나 과정, 사물에 대한 작업보다 선행한다.(예 : 의학-폐-질병)
- ③ 목적(최종 산물)이 수단(작업)보다 선행한다. (예 : 화물-수송수단)
- ④ 의존되는 요소가 의존하는 요소보다 선행한다. 즉  $y$ 가 요소  $x$ 에 의존한다면 열거순서는  $xy$ 가 된다. 사물에 있어서 부분은 전체에 의존하고, 속성은 사물 (전체나 부분)에 의존하며 과정도 사물에 의존하므로 전체나 부분이 속성이나 과정에 선행한다.

BC(1977, 40)의 패싯 열거순서는 기본 주제의 경우 사물의 유형-부분-재료-속성-작업-행위의 주체-장소-시간의 순서이고, 하위 패싯 안에서의 순서는 행위-부품-행위자-부분-전체의 순서로 열거된다고 하고 있다.

위의 몇 가지 일반적인 원칙을 반영한 것이 표준적인 패싯 열거순서로서, 사물의 전체-유형-부분-물질-속성-과정-(사물에 대한) 작업-행위의 주체-장소-시간 순이다.

전조합색인의 경우에는 패싯의 순서는 이미 고정되어 있다. CC에서도 패싯 공식으로 제시된 순서(BF, PMEST)는 고정되어 있어 임의로 변경할 수가 없다. 이 순서는 일정한 규범과 원칙에 따라 구체성 감소 또는 추상성의 증가 순서로 배열되어 있다. 따라서 분류자는 특정 패싯이 어떤 회차와 어떤 수준에 할당되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결정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랑가나단은 패싯의 순서를 결정해 두는데 반대하고, 벽화원칙, 전체-부분원칙, 어미 소- 송아지 원칙, 피행위자-행위자-도구의 원칙, 상품-원료-변형의 원칙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Ranganathan 1967, 425-428)

### III. DDC의 패싯 구조

DDC는 현재 열거식 분류표와 조합식 분류표의 중간 단계에 놓여 있다. DDC의 초판에서도 매우 분명한 조합식 구조를 여러 곳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특히 어학류(400)와 문학류(800)에서 이러한 구조를 확인할 수 있다. Foskett에 지적에 의하면 드이는 조합식 구조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지 못했으나, 랑가나단에 의해 일반적인 원리로 발전되었다고 평가한 바 있다.(Foskett 1996, 258) 그러나 열거식의 방법으로 시작된 DDC도 18판 이후부터는 여러 가지 보조표와 합성지시를 통하여 조합식 구조를 수용하였으며 20판은 음악(780), 21판에서는 행정학(351-354)과 생명과학(570-599)을 개정하면서 패싯 구조를 도입하여 앞으로의 방향을 예측할 수 있게 한다. 따라서 DDC는 초판과 달리 복합적인 구조를 갖게 되었고, 그의 사용방법도 더욱 정교하게 되었다.

DDC는 기호합성을 통하여 지식에 근접한 분석과 특수한 주제들에 대한 후속적인 분류를 위한 장치까지도 마련하고 있다.

DDC 편집정책위원회에서는 패싯 기호를 사용하는 것은 기호 안에서 의미 있는 요소를 확인하는 것이며 통일된 기호를 사용하는 것은 본표상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국면을 표현하는 것으로 이들 기호에 의해서 정보 검색을 쉽게 할 수 있는 이점이 있음을 인정하고 패싯 구조를 도입하였다.(Dewey 1996, 1 : xx)

#### 1. 생명과학의 패싯 구조 유형

21판의 생명과학(570-590)은 생물학 일반(570)과 쌍자엽식물(583)을 전면적으로 개정하고 나머지는 부분적으로 개정하였다. 개정의 특징으로는 생물의 생리작용과 조직(571-575)에서 주제의 결합구조를 생물/생리작용에서 생리작용/생물로 도치시킨 점이며 579에 미생물과 균류, 해조류를 병치시킨 점, 그리고 생물의 일반적인 주제에 대해 기호 1의 사용을 규칙화 한 것이 달라진 점이다.

##### 1) 생명과학에서 주제의 전개

생명과학(570-590)에서는 생명과학, 생물학, 식물학, 동물학의 주제영역을 포괄하고 있으며 각 주제영역의 하위 주제는 표와 같다.

기호	생명과학(570)	식물학(580)	동물학(590)
1	생리학	자연사	자연사
2	생화학	식물의 생장 특성	무척추동물
3	동물의 생리기관	쌍엽식물	기타해양무척추동물
4	-	단엽식물	연체동물
5	식물의 구성요소와 생리체계	나자식물(겉씨식물)	절족동물
6	유전학과 진화	온화식물	척색동물
7	생태학	양치식물	냉혈동물
8	생물의 자연사	이끼식물	조류
9	미생물, 균류, 조류	-	포유동물

DDC에서는 동일 수준의 패싯을 9가지로 제한하기 때문에 합리적인 전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생물학(570)의 하위 주제인 동물학(590)과 식물학(580)을 생물학과 대등한 수준으로 취급하고 있어, 논리적으로 모순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CC에서도 생물학(G)과 식물학(I), 동물학(K)을 독립적인 대등한 수준으로 배정하고 있어, 분류체계의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 2) 생명과학(570)의 패싯 구조

생명과학에서는 생리학과 생화학, 동물의 특수 생리체계, 식물의 생리체계, 유전학, 생태학, 자연사, 미생물 등을 목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571-575는 식물과 동물의 내부 생물학적 작용과 구조에 적용되고, 동시에 생리학과 생화학(571-572)은 모든 유기체에 적용되는 목으로 규정하고 있다(Dewey 1996, 2 : 1052). 한편 유전학과 생태학, 생물의 자연사(576-578)는 미생물(579)을 포함하여 식물(580)과 동물(590)과 관련된 외부 생물학적 환경을 표현하는 목으로 규정하고 있다(Dewey 1996, 2 : 1087). 따라서 생명과학(570)에서는 각종 동물이나 식물의 내부 생물학적 작용이나 외부 환경과의 관계를 결합할 수 있는 구조로 목을 구성하고 있다.

그런데 위의 목이 지닌 특성을 보면, 동물의 특수 생리체계와 식물의 특수 생리체계는 생리학의 하위범주로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를 대등한 수준으로 적용하고 있고, 유전학과 생태학, 자연사는 모든 동물과 식물에 적용될 수 있는 하위범주로서 이를 미생물(균류, 조류 포함)과 대등한 수준으로 규정하고 있어, 목의 적용에서 그 수준이나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 (1) 생리학(571)의 세목구조

#### ① 생리학의 세목

생리학은 동물생리학(571.1), 식물생리학(571.2), 해부학과 형태학(571.3), 생물물리학(571.4), 조직학(571.5), 세포학(571.6), 생물 방제와 분비(571.7), 생식, 발생, 성장(571.8), 질병, 병리학(571.9)로 전개되어 있다.

동물생리학(571.1)과 식물생리학(571.2)은 각각 특정 기호(1은 동물, 2는 식물)로 표현되고, 여기에 특정 동물이나 식물의 생리작용을 표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컨대 포유동물의 생리학은 571.19(571.1에서 1은 동물, 9는 599의 포유동물)이고, 단자엽식물의 생리학은 571.24(571.2에서 2는 식물생리학, 4는 584의 단자엽식물)로 결합된다. 그런데 이 기호(1과 2)의 적용범위는 생리학뿐만 아니라 생화학(572)에도 전반적으로 적용되고 있어, 일종의 패싯 개념으로 해석할 수 있다(Dewey 1996, 2 : 1052). 예컨대 포유동물의 해부학은 571.319가 된다.

아울러 생리학에서는 세목으로 제시된 주제를 다시 하위주제로 전개하고 있고, 이를 하위주제가 특정 생물과 관련을 가질 때 이를 결합하는 구조를 도입하고 있다(Dewey 1996, 2 : 1054). 예컨대 빛이 포유동물의 조직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는 571.45519가 된다. 즉 빛(571.455)이 동물(1)의 하위요소인 포유동물(599)과 관계를 가질 때 이를 결합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생리학에서는 일정한 틀을 발견할 수 있다. 즉 기호 1과 2, 3은 각각 동물과 식물, 해부학을 의미하는 패싯 기호로 일관되게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② 생리학의 패싯 구조

동물과 식물 생리학의 패싯 구조는 기본패싯(571)에 동물(1)과 식물(2)을 결합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다시 특정 동, 식물의 종류를 결합할 수 있으며 해부학(571.3)도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다.

기본패싯(571 또는 571.3) + 동물이나 식물 + 특정 동물이나 식물

동물생리학 571.1

571(생리학) + 1(동물) = 571.1

포유동물의 해부 571.319

571.3(해부) + 1(동물) + 9(포유동물) = 571.319

조직학, 세포학, 생물방제와 분비, 생식, 발생, 성장, 병(571.5-571.9)에서는 특정 동식물의 둘 이상의 생리작용이 서로 관련되었을 때 이를 결합하는 구조를 제시하고 있다. 특히 571.5-571.9에서는 3을 해부학 및 특정 생리작용이 다른 생리작용과 관련을 가질 때 이를 표현하는 패싯 개념으로 적용되고 있다(Dewey 1996, 2 : 1056). 예컨대 포유동물의 지방조직 해부는 571.573319(571.57은 지방조직, 3은 해부학을 지칭하는 기호, 다음의 3은 해부, 19는 포유동물을 의미)로 표현이 가능하다.

기본패싯(571.5-571.9) + 3 + 해부와 생리작용(571.3-571.8) + 동물 또는 식물

포유동물의 지방조직 해부 571.573319

571.57(지방조직) + 3(폐식 기호) + 3(해부) + 19(포유동물)

따라서 571.3-571.9에서는 기호 1과 2, 3은 폐식 기호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2) 생화학(572)의 전개

① 생화학의 세목은 생화학의 일반주제(572.3), 신진대사(572.4), 기타화합물(572.5), 단백질(572.6), 효소(572.7), 생화학적 유전(572.8)로 전개되어 있고, 각 세목은 다시 하위세목으로 전개되어 있다.

생화학에서 전개된 세목이나 하위세목을 특정 동물과 식물에 적용할 때는, 생리학에 적용한 것과 동일한 기호(1은 동물, 2는 식물)를 사용하여 특정 동물의 생화학 관련주제를 표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② 특수 생화학과 생화학적 유전(572.5-572.8)의 구조

특수 생화학(기타 화합물, 단백질, 효소) 및 생화학적 유전(572.5-572.8)을 전개할 때는 폐식 기호 3과 4를 사용하여 조합하여 이 폐식은 다시 특정 동물이나 식물과 결합할 수 있다.

가) 기본폐식(572.5-572.8) + 3 + 생화학의 일반주제(572.33-572.39)

포유동물 단백질의 분석생화학 572.63619

572.6(단백질) + 3(폐식기호) + 6(분석생화학) + 19(포유동물)

나) 기본 폐식(572.5-572.8) + 4 + 신진대사와 유전(572.401-49)

식물의 철분 영양소의 신진대사 572.5142

572.51(무기생화학) + 4 (신진대사) + 2 (식물)

이와 같이 572.5-572.8에서는 1은 동물, 2는 식물, 3은 생화학의 일반주제, 4는 신진대사를 의미하는 폐식으로 사용되고 있다(Dewey 1996, 2 : 1068).

### (3) 동물의 생리기관(573)의 전개

① 동물의 생리기관은 그 종류에 따라 순환기(573.1), 호흡기(573.2), 소화기(573.3), 내분비와 배설기관(573.4), 피부(573.5), 생식기관(573.6), 근골조직(573.7), 신경조직(573.8)과 기타 기관이나 조직(573.9)으로 전개하고 있다.

#### ② 동물의 생리기관(573.1-573.9) 폐식 구조

동물의 생리기관에 적용되는 폐식 구조는 다음의 4가지 형태로 정리할 수 있다.

가) 생리기관의 종류(573.1-573.9) + 동물(1)

생리기관과 특정 동물을 결합하기 위해서는 패싯 기호 1과 동물학(592-599)의 하위 구분지를 결합한다.

포유동물의 소화기 573.319

573.3(소화기) + 1(동물) + 9(포유동물)

나) 생리기관의 종류(573.1-573.9) + 다른 기관의 생리작용 (2)

특정 생리체계가 다른 생리체계와 관련을 가지는 경우 이를 표현하는 패싯 기호로 2를 사용한다.

포유동물 소화기의 순환작용 573.2119

573.3(소화기) + 21(순환) + 1(동물) + 9(포유동물)

다) 생리기관의 종류(573.1-573.9) + 3 + 생리작용(571.3-571.9)

생리기관의 해부와 특수 생물학적 작용은 패싯 기호 3을 사용한다.

소화기의 해부 573.333

573.3(소화기) + 3(생리작용) + 3(해부)

라) 생리기관의 종류(573.1-573.9) + 4 + 생화학(572.01-572.8)

생리기관의 생화학적인 면은 패싯 기호 4를 사용하여 결합한다.

포유동물 소화기의 신진대사 573.34419

573.3(소화기) + 4 + 4(신진대사) + 1(동물) + 9(포유동물)

따라서 이 주제영역에서는 1은 동물, 2는 특정 생리체계가 다른 생리체계와 관련을 가지는 경우 이를 결합하는 패싯, 3은 해부학, 4는 생화학의 의미로 사용되는 패싯구조를 가지고 있다(Dewey 1996, 2 : 1074-1075).

#### (4) 식물의 구성 요소와 생리체계(575)의 전개

식물의 구성 요소와 생리체계는 줄기(575.4), 뿌리와 잎(575.5), 생식기관, 꽃(575.6), 순환기, 영양저장, 배설(575.7), 수분 발산(575.8) 그리고 동물과 유사한 생리작용(575.9)으로 전개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은 패싯 구조를 도입하고 있다. 즉 식물에만 적용되는 주제이기 때문에 패싯 기호 1은 사용하지 않으며 2는 특정 식물이나 특정 식물의 기관(단엽식물 24), 3은 구성요소나 작용과정(식물의 병 39)을 표현하는데 사용된다.

특히 575.6-575.9에서 2와 3은 특정 식물이나 특정 기관을 표현하며, 4는 생화학을 의미하는 패싯으로 적용한다(Dewey 1996, 2 : 1085).

가) 기본패싯(575.4-575.5) + 2(식물) + 종류(1-8) + 1 + 자연사(581.3-581.9)

단엽 식물에서 잎의 이식 575.572414

575.57(잎) + 2(식물) + 4(단엽 식물) + 1 + 4(이식)

## 14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0권 제3호)

나) 기본패싯(575.4-575.5) + 3(식물의 부분과 작용) + 생리작용(571.3-571.9)

단엽식물에서 잎의 병 575.573924

575.57(잎) + 3(패싯 기호) + 9(병) + 2(식물) + 4(단엽식물)

다) 기본패싯(575.6-575.9) + 4 + 생화학(572.01-572.8)

꽃의 효소 575.647

575.6(꽃) + 4(패싯 기호) + 7(효소)

### (5) 유전학과 진화(576), 생태학(577), 생물의 자연사(578)의 전개

일반적인 생물학적 현상과 외부 생물학적 현상을 다루는 유전학과 진화(576)에서는 특별한 패싯을 적용하지 않고 있으며, 생태계의 작용과 생태계에 미치는 요소, 삼림, 초지, 담수, 해양 및 군집생태학과 각종 환경에서의 생태학과 같은 하위주제를 가지고 있는 생태학(577)과 생물의 자연사(578)에서는 특정한 패싯 장치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

### (6) 미생물, 균류, 조류(579)의 전개

이 주제의 하위주제는 미생물, 균류, 조류 자연사의 특수 주제(579.1), 바이러스(579.2), 박테리아(579.3), 원생동물(579.4), 균류(579.5), 버섯류(579.6), 이끼류(579.7), 조류(藻類)(579.8)로 전개되어 있다.

그런데 미생물의 종류(579.2-579.8)는 미생물, 균류, 조류 자연사의 특수주제(579.1)에서 전개된 주제를 합성하는 방식을 도입하고 있다. 즉 유전과 진화(579.13), 적응(579.14), 기타 비 분류학적인 유형의 생물(579.16), 특정 환경에서의 생물의 특성(579.17)에서 기호 .13, .14, .16은 미생물의 종류(579.2-579.8)를 전개할 때 패싯으로 사용되며, 특수환경의 미생물(579.17)은 특수 환경을 전개할 때 패싯으로 사용되고 있다.

### 3) 식물학(580)의 전개

식물학은 식물 자연사의 특수 주제(581), 식물의 생장특성(582), 쌍엽식물(583), 단엽식물(584), 나자식물(겉씨식물)(585), 은화식물(586), 양치식물(587), 이끼식물(588)로 전개되어 있다.

그런데 식물 자연사의 특수주제(582.1)에서 기호 '7'을 특수 환경의 식물을 표현하는 패싯 개념으로 적용하고 있다. 즉 수중식물은 패싯 기호인 7에 특수 환경의 생태학(577.3-577.8)에서 전개된 기호를 합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Dewey 1996, 2 : 1119).

기본패싯(581 또는 582.1) + 7 + 환경의 종류(577.3-577.6)

초본식물의 수경재배 582.1276

582.12(초본식물) + 7(환경) + 6(수경재배)

한편 식물의 종류(583-588)에서는 패싯 기호 1을 사용하여 식물의 자연사에 관한 주제를 표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Dewey 1996, 2 : 1120). 즉 패싯 기호 1에 581.3-581.7에 전개된 기호를 합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본패싯 + 1(자연사) + 생리작용(581.3-581.7)

단엽식물의 유전 584.135

584(단엽식물) + 1 + 35(유전)

#### 4) 동물학(590)의 전개

동물학의 하위주제는 동물의 자연사에 관한 특수 주제(595), 무척추동물(592), 기타 해양 무척추동물(593), 연체동물(594), 절족동물(595), 척색동물(596), 냉혈동물(597), 조류(598), 포유동물(599)로 전개되어 있다.

그런데 동물의 종류(592-599)에서는 1을 패싯 개념으로 도입하여, 특정 동물을 표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Dewey 1996, 2 : 1146). 즉 유용한 동물은 163, 해양동물은 177과 같이 표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식물학(580)과 동물학(590)의 패싯 구조가 동일함을 알 수 있다.

#### 5) 생명과학의 패싯 구조의 종합

생명과학(식물학과 동물학 포함)의 패싯 구조는 본표상에 열거된 기호에 하나의 패싯이 더해지는 것 이외에 한 번 조합이 된 구조에 다시 패싯이 합성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기본적인 패싯 구조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① 기본패싯 + 동물(1) 또는 식물(2) + 1 + 자연사

패싯 기호 1에 더해지는 자연사는 미생물의 자연사(579.1), 식물의 자연사(581), 동물의 자연사(591)의 하위 패싯이다.

② 기본패싯 + 3 + 생리작용(571.3-571.9) 또는 생화학(572.33-572.36)+동식물+1+자연사

③ 기본패싯 + 4 + 신진대사와 유전(572.401-572.49) + 동식물 + 1 + 자연사

④ 기본패싯 + 4 + 생화학(572.01-572.8) + 식물 + 1 + 자연사

⑤ 기본패싯 + 7 + 환경의 종류(577.3-577.8)

⑥ 기본패싯 + 8 + 군집 생태학(577.801-577.88)

⑦ 기본패싯 + 9 + 지역

#### 6) 생명과학에서의 논의

##### (1) 패싯 기호에 대한 논의

생명과학에서 사용되는 패싯 기호는 두 가지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 일관성이 없다.

① 패싯 기호 1

패싯 기호 1은 미생물, 식물학, 동물학(579-599)의 자연사에 관한 주제에 사용되지만 생물의 생리작용과 구조에서는 동물을 의미하며, 동물의 각 기관에서는 소화기를 의미하고 생태학에서는 생태 조작과정을 의미한다.

예 가) 생물의 자연사	579.1 (미생물의 자연사)
	581 (식물의 자연사)
	591 (동물의 자연사)
나) 유용한 포유동물	594.163
다) 동물의 생리학	571.1 (동물을 의미)
라) 동물 생리기관(소화기)	573.1
마) 생태조직의 과정	577.1

② 패싯 기호 2

식물을 의미하는 기호 2는 동물의 각 기관(573.1-573.9)을 전개할 때 한 기관이 다른 기관과의 작용을 나타내는 기호로, 그리고 생태학(577)에서 생태학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 사용되고 있다. 동물의 각 기관 아래에서는 순환(21), 피부(25), 근육(27), 신경(28)을 표현하고 있다.

예 가) 식물의 생리학	571.2
나) 소화기의 순환	573.321
다) 생태학에 영향을 주는 요소	577.2

③ 패싯기호 3

패싯 기호 3은 생리학(571.3-571.8)의 한 주제(특히 해부학이나 생리작용)가 조직학, 세포학, 생물방제와 분비, 생식, 발생, 성장, 병(571.5-571.9)에 적용될 때 사용되는 경우와 특수 생화합물과 생화학적 유전(572.5-572.8)에 대한 생화학의 일반주제(572.33-572.39)로 세분할 때 적용된다.

예 가) 포유동물 지방조직의 해부	571.573319
나) 포유동물 단백질의 분석생화학	572.63619

④ 패싯 기호 4

패싯 기호 4는 특수 생화합물과 생화학적 유전(572.5-572.8)에서는 신진대사와 유전(572.401

-572.49)을 전개하기 위해 사용되며, 동물의 기관(573.1-573.9)과 식물의 생리체계(575.6-575.9)에 서는 생화학(572.01-572.8)을 전개하는 기호로 사용된다.

- |                     |          |
|---------------------|----------|
| 예 가) 포유동물 단백질의 신진대사 | 572.6419 |
| 나) 꽃의 효소            | 575.647  |

이와 같이 패싯의 개념을 도입하여 기호 조합을 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였으나 패싯 기호의 적용주제에 따라 두 가지 이상의 의미로 사용되기 때문에 적용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볼 수 있다.

## (2) 동물과 식물 기호에 대한 논의

동물과 식물을 의미하는 기호가 일관성이 없다. 생리학과 생화학의 경우에는 동물을 나타내는 기호로 1을 사용하고, 동물의 기관을 구분하는 경우에는 573, 그리고 동물학에서는 590을 사용하고 있어, 기호의 의미에 일관성을 부여하기 어렵다. 아울러 식물을 나타내는 기호도 생리학과 생화학에서는 패싯 기호 2를 사용하고 식물의 기관이나 생리 체계에서는 575, 식물학에서는 580을 사용하는 것도 같은 경우이다. 미생물의 경우도 29와 579를 동시에 사용하기 때문에 혼란을 주고 있다.

### ① 동물

- |             |         |
|-------------|---------|
| 예 가) 동물 생리학 | 571.1   |
| 나) 동물의 각 기관 | 573     |
| 동물의 소화기     | 573.3   |
| 포유동물의 소화기   | 573.319 |
| 다) 포유동물     | 599     |

위의 예 나)에서 포유동물의 소화기를 나타내는 경우에는 동물을 의미하는 573과 동물의 종류를 나타내기 위한 기호 1이 중복되며, 여기에 동물의 자연사 패싯을 결합하면 다시 1의 기호가 중복되어 패싯의 의미를 확인하기 어렵다. 예컨대 해양 포유동물의 소화기는 573.319177로 앞의 1은 동물을, 뒤의 1은 자연사(특수 환경의 종류 : 해양)를 의미하는 것으로 패싯 기호의 의미를 이해하기 어렵다.

### ② 식물

식물을 의미하는 기호가 생리학에서는 2, 식물의 각 부분을 의미하는 575, 그리고 식물학의 58을 사용하고 있다.

- |             |       |
|-------------|-------|
| 예 가) 식물 생리학 | 571.2 |
| 나) 식물의 각 부분 | 575   |

뿌리 575.54

단엽식물의 뿌리 575.5424

다) 단엽식물 584

식물에서도 동물과 마찬가지로 단자엽식물의 이식은 575.542414로 기호 1의 의미가 자연사인지 연체동물(594)인지 구분하기 어렵다.

### (3) 식물학과 동물학의 차이

식물학(580)과 동물학(590)에서 식물학은 식물의 자연사(581)와 식물의 생장 특성(582)을 배정한 다음에 식물의 종류(583-588)로 구분하고 있으나, 동물학(590)은 동물의 자연사(591)만을 배정하고 동물의 종류(592-599)로 구분하고 있다. 그 이유는 식물학에서는 일반적인 자연사에서 다를 수 없는 풀(2년생 또는 일년생), 수목 및 덩굴 등과 같은 생장 특성의 구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동물학은 동물의 기관(573)에 필요한 사항을 모두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생장특성을 별도로 마련하지 않고 있다.

### (4) 동물의 생리기관(573)의 패싯 구조

동물의 기관에 대한 패싯 구조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생명과학(570)에서 가장 복잡하여 예컨대 생리기관이 다른 기관에서 특정 생리체계 작용의 경우와 같이 생리기관의 순환(21), 해부 및 생리작용(213), 피부(25), 근육(27), 신경조직(28)을 세분하는 패싯으로 순환(21)은 다시 동물의 종류로 세분할 수 있으며, 해부와 일반 생리작용(213)은 생리학의 하위 패싯(571.3-571.9)에서 3-9로 세분할 수 있으며 피부, 근육, 신경 조직은 다시 순환(213)과 해부 및 순환의 일반생물학적 과정(213)에서 사용한 패싯을 각 패싯 기호에 결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동물의 생리기관(573)의 결합구조는 복잡하기 때문에 기호의 결합이 어렵고 기호의 길이가 길어진다.

### (5) 생태학의 환경 패싯 사용

생태학(577)의 하위 구분들은 미생물, 식물 동물의 자연사에서 특수 환경에서의 생태를 표현할 때 사용한다. 따라서 생물의 자연사에서 17은 모두 특수 환경아래의 생태계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므로 기호 7이 환경을 의미하는 패싯으로 사용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군집생태학의 경우에는 기호 7에 군집생태학을 나타내는 기호 8을 결합하여 표현하며 특정 지역의 생물은 기호 9와 지역(Table 2)을 결합하여 표현한다.

#### (6) 기호에 얹매이는 주제의 전개

DDC는 십진 기호법을 사용하므로 동일 수준의 패싯을 9가지로 제한하여 합리적인 전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생물학(570)의 하위 주제인 동물학(590)과 식물학(580)을 생물학과 동일 수준으로 취급하고 있는 것은 학문분류의 입장에서는 논리적인 모순을 보이지만 CC에서도 생물학(G)와 식물학(I)과 동물학(K)로 배정한 것은 자료를 분류의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볼 수 있으며 또한 CC에서도 각 주제에 따라 패싯 공식을 다르게 적용하는 것과 같은 의미로 볼 수 있다.

#### (7) 해양 생태학에 대한 논의

해양 이외 환경의 생태학의 패싯 구조는 간단하지만 해양 생태학은 구조가 복잡하다. 즉 특정 해양에 대해서는 지역구분을 하는데 Table 2의 해양 패싯(-163-165)에 따라 지리구분을 하고 여기에 생태 과정과 특수 요소를 조합하며, 해양 환경의 종류에 따른 생태학은 해양의 표면, 연안 등으로 전개한 해양환경의 종류(577.76-577.78)를 생태학(577)에 전개된 577.1-577.5에서 조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다른 환경에서의 생태학과 주제의 전개에서 불균형을 이루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특수 환경의 생태학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환경 구분의 방법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 (8) 생물의 자연사(578)와 동, 식물의 자연사(581과 591)의 중복

생명과학의 일반주제(자연사)에 해당하는 패싯은 생명과학과 동물학, 식물학에서 다르게 사용되고 있다. 즉 생물의 자연사(578)에서는 특정 생물이 아닌 종합적으로 취급한 자료를 분류하도록 하고 있고, 동, 식물의 자연사에 관한 특수 주제는 해당 주제아래 전개시켜 놓고 있다.

생리학과 생화학에서 동물 패싯 기호로 1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생명체 전체에 적용하는 것은 576과 578에 전개하고, 동, 식물의 종류에 관한 자연사는 패싯 기호 1을 사용해도 혼동이 없기 때문에 기호 1을 자연사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균형을 위해서는 자연사에 대한 패싯 기호를 별도로 만들어 각 주제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하겠다.

## 2. 문학의 패싯 구조유형

DDC의 초판부터 패싯 구조를 적용한 주제영역이 바로 문학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자료는 그 주제에 따라 분류하는 것이 원칙이며 DDC도 이 기본원칙을 준수하고 있으나 문학은 주제 대신 저작물에 사용된 언어나 문학형식, 시대를 패싯으로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 외에도 비평, 전집, 특성, 주제, 저자 등을 패싯으로 적용하고 있어 이를 패싯이 적용되는

작품일 경우에는 복잡한 패싯 구조를 갖는다.

DDC에서는 보조표(Table 3)를 통해 문학작품을 언어 이외의 패싯으로 구분하고자 할 때 사용한다. 이 보조표는 3개의 하위표로 구분되는데, 표 3-A는 개인 저자의 작품에 적용하는 형식 패싯을 전개한 것이고, 표 3-B는 2인 이상의 저자와 2인 이상의 작품에 적용하는 형식 패싯으로서, 여기에는 전집(-08)과 비평(-09)과 형식(-1-8)을 전개하고 있으며, 표 3-C는 표 3-B와 808, 809에 추가되는 사항으로 구성되어 있다(Dewey 1996, 1 : 405-436).

### 1) 문학과 수사학(800)의 패싯 구조

문학은 일반적으로 언어와 형식, 시대, 특성/테마/사람 등의 패싯에 의해 전개된다. 문학의 패싯 구조를 보면, 801-807은 표준구분을 적용하고 808은 수사학(808.1-808.7)과 두 가지 이상의 상이한 형식의 문학전집(808.8), 문학사, 비평, 연구(809)로 전개되어 있으며, 810-899는 언어를 패싯으로 적용한 각국 문학을 전개하고 있다(Dewey 1996, 2 : 737-738). 언어로 구분된 각국 문학은 다시 형식 패싯으로 구분되고, 여기에 시대나 특성/테마/사람 패싯을 조합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 (1) 언어 패싯

언어는 문학의 첫 번째 패싯으로 문학의 강(division)을 표현하는데 1-8까지는 현대 언어를 기준으로 각국 언어로 구분하고 있으나, 각 언어권에 해당되는 고대어와 어족은 9에서 전개하고 있다(예 : 829는 고대 영어나 어족). 아울러 81-88에 전개된 언어 이외의 언어는 십진분류법의 기호체계에 따른 한계를 반영하여 모두 기타언어문학(890)으로 배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주제(890)에서 언어는 기호형식상 세목의 위치에 놓이게 되어 언어와 형식 패싯을 구분하기가 어렵고 따라서 기호상으로는 일관성을 발견하기 어렵다.

아울러 2개 국어 이상의 문학전집(808.8)과 비평(809)에서도 언어 패싯을 표현할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

#### (2) 문학 형식 패싯

문학형식은 각국 문학(810-880)에서 목(section)을 구성하는 패싯으로서, 문학형식의 적용은 작가의 수에 따라 적용 패싯을 달리하고 있다. 즉 개인작품인 경우에는 Table 3-A의 형식 패싯을, 2인 이상의 작품인 경우에는 Table 3-B의 패싯을 적용한다. 그리고 Table 3-B 문학 형식에서는 형식의 유형과 범위, 매체 등의 하위 패싯을 전개하고 있다.

#### (3) 시대 패싯

시대 패싯은 문학의 세목을 구성하는 패싯으로서, 문학을 시대구분하기 위해서는 본표의 각 국 문학(810-890)아래 전개되어 있는 패싯을 사용하고, 2개 국어 이상의 문학작품인 경우에는 표준구분의 시대 기호를 적용한다.

#### (4) 특성/테마/사람 패싯

특성/테마/사람 패싯은 808, 809 및 Table 3-B에서 지시가 있을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패싯으로 Table 3-C에 전개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시대(-01-09), 양식, 관점(-1), 특정 요소를 포함한 문학(-2), 특정 테마나 주제를 다룬 문학(-3), 주제를 강조한 문학(-4), 인종, 국적, 민족 문학(-8), 특정 계층의 사람(-9)으로 되어 있다.

#### 2) 수사학(808.001-808.8), 문학전집(808), 비평(809)

##### (1) 수사학(808.001-808.7)의 전개

수사학은 저술 및 편집 기술(808.02), 특정 언어의 수사학(808.04), 집필 종류에 따른 수사학(808.06), 문학 형식(Table 3-B)에 따른 수사학(808.1-808.7)으로 전개하고 있는데 패싯 구조는 다음과 같다.

① 808 + 04(언어) + 언어의 종류(Table 6)

문장작법(영어로 기술된) 808.0421

808(문장작법) + 04(언어) + 21(영어)

② 808 + 066(전문분야) + 주제 + 0 + 언어(Table 6)

영어로 기술한 문현정보학 문현 작성 808.06602021

808(문장작법) + 066(전문분야) + 02(도서관학) + 0 + 21(영어)

③ 808 + 068(아동문학) + 형식

아동용 드라마 작법 808.0682

808(문장작법) + 068(아동문학) + 2(희곡)

④ 808 + 형식(하위형식 포함)

단편소설 작법 808.31

808(문장작법) + 3(소설) + 1(단편소설)

⑤ 808 + 형식 + 9 + 특수 요소(Table 3-C의 -22-27)

소설 속의 등장 인물의 성격 808.397

808(문장작법) + 3(소설) + 9(특수요소) + 7(성격)

위의 구조에서 ⑤는 소설에 대한 수사학에서만 사용된다.

## (2) 문학전집(808.8)과 비평(809)의 구조

### ① 문학전집(808.8)의 전개

둘 이상의 저자나 상이한 언어로 쓰여진 문학전집은 시대(808.8001-8005), 특성을 지닌 전집(808.801-803), 특정 형식의 전집(808.81-88)으로 전개되어 있는데, 둘 이상의 저자나 상이한 언어로 쓰여진 문학전집을 시대로 구분할 경우에는 표준구분의 시대 패싯을 적용하고(Dewey 1996, 3 : 744), 특성을 지닌 전집은 Table 3-C에 열거된 특성을 적용하며(Dewey 1996, 3 : 744), 특정 형식의 전집은 Table 3-B의 형식 패싯에 따라 전개한다(Dewey 1996, 3 : 745-747).

### ② 문학비평(809)의 전개

상이한 언어권에서 2인 이상의 저자의 작품에 대한 역사, 서술, 비평은 시대(809.01-05), 특정 형식의 문학비평(809.1-7), 특정 계층을 위한 문학비평(809.8), 특징을 지닌 문학의 비평(809.9), 성질이나 요소를 지닌 문학의 비평(809.91-92), 기타 관점을 지닌 문학의 비평(809.93)으로 전개되어 있는데(Dewey 1996, 3:747-749), 특징을 지닌 문학(809.9)의 하위 구분은 Table 3-C의 패싯을 따르고 있으나 완전히 일치되지 않고 있다.

### ③ 문학전집(808.8)과 비평(809)의 패싯 구조

둘 이상의 저자나 상이한 언어로 쓰여진 문학전집과 비평에 대해서는 언어 패싯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형식 패싯을 문학 전집(808.8)이나 비평(809)에 결합한다.

808.8 또는 809 + 형식 + 시대 + 특성/테마/사람

가) 형식, 시대, 특성/테마/사람 중 하나의 패싯만 있는 경우

㉠ 808.8 또는 809 + 0 + 시대(Table 1)

18세기 세계문학전집 808.80033

808.8(전집) + 0 + 033(18세기)

㉡ 808.8 + 0 + 특성/테마/사람(Table 3-C)

사회적 테마에 관한 세계문학전집 808.80355

808.8(전집) + 0 + 355(사회적 테마)

㉢ 809 + 9 + 특성/테마/사람(Table 3-C)

사회적 테마를 다룬 세계문학 비평 809.93355

809(비평) + 93 + 355(사회적 테마)

㉣ 808.8 또는 809 + 형식(하위형식)

세계 소설전집 808.83

808.8(전집) + 3(소설)

나) 형식, 시대, 특성/테마/사람 패싯중 두 가지 패싯이 있는 경우 위의 패싯 중 두 가지 패싯이 적용될 때는 다음의 구조에 따른다.

⑦ 808.8 또는 809 + 형식 +시대

20세기 소설전집 808.8

808.8(전집) + 3(소설) + 0 + 4(20세기)

⑧ 808.8 또는 809 + 형식 + 특성/테마/사람(Table 3-C)

동물에 관한 시비평 809.19362

809(비평) + 1(시) + 9(특성) + 362(동물)

⑨ 808.8 또는 809 + 형식 + 9 + 사람(Table 3-C의 8-9)

한국인을 위한 세계문학전집 808.89957

808.8(전집) + 9(사립) + 957(한국인)

⑩ 809 + 89 + 특성/테마/사람(Table 3-C)

여류문학비평 809.89287

809(비평) + 89(특성) + 287(여성)

⑪ 809 + 8 + 민족, 인종, 국가군(Table 5)

한국인의 문학비평 809.8957

809(비평) + 8 + 957(한국인)

⑫ 809 + 9(특성) + 특성/테마

전쟁을 소재로 한 문학 비평 809.93355

809(비평) + 9(특성) + 3355(전쟁)

⑬ 809 + 935 + 주제(001-999)

문학으로서 종교저작 809.9352

809(비평) + 935(주제를 강조한 경우) + 2(종교)

이상의 7가지 구조는 1) 808.8 또는 809 + 형식 + 시대, 2) 808.8 또는 809 + 형식 + 특성/테마/사람, 3) 808.8 또는 809 + 특성/테마/사람 또는 808.8 또는 809 + 시대로 요약할 수 있다.

그러나 시대 패싯과 특성/테마/사람 패싯을 동시에 적용해야 하는 경우, 이 두개의 패싯을 적용하는 수단이 없다. 이것은 DDC에서 0과 1-9를 동시에 적용할 때 0으로 시작되는 세목을 적용하지 않으며, 00과 0의 경우에도 00으로 시작되는 세목은 적용하지 않기 때문이다(Dewey 1996, 1 : xxxviii). 따라서 18세기 우정에 관한 문학전집의 경우는 808.80353(특성 패싯을 결합)과 808.80033(시대 패싯을 결합)으로 표현이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시대 대신 특성/테마/사람 패싯을 사용해야 한다.

### 3) 각국 문학(810-890)

#### (1) 각국 문학(810-890)의 전개

각국 문학의 전개는 언어 패싯에 따라 전개되고 있는데(3.2.1.1 참조), 이의 하위 구분 방법은 다음과 같다. (A는 언어 패싯)

8A0.1-9 표준구분, 문학전집, 비평

8A1-8A8 문학형식에 따른 전개

8A9 각 어족에 따른 전개

그러나 위의 구분 방법에서 각 문학의 어족에 따른 전개는 각국 문학에 따라 지역 강조가 필요하지 않은 영어로 된 미국문학(819), 고대 영어(앵글로 색슨)문학(829), 기타 게르만(튜토 닉) 문학(839), 프로방스, 후랑코 프로방스, 카타란 문학(849), 로마니안, 래토-로마니안 문학(859), 포루투갈 문학(869), 기타 이탈리아 문학(879), 현대 그리스 문학(889)으로 전개하고 있다. 따라서 어족에 따라 전개되는 기호 9는 각국 문학에 따라 패싯의 의미를 다르게 사용하고 있어 이 부분에 해당하는 문학은 표를 확인해야 하며 미국문학의 경우는 임의 규정으로 두고 있다.

#### (2) 개인작품

개인 작품의 패싯 구조는 8 + 언어 + 형식 + 시대이다. 형식 패싯은 Table 3-A에 전개되어 있고, 특정 문학 형식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8)에는 시대 패싯을 결합한 다음, 일화, 경구(02), 일기나 잡지(03), 형식을 규정할 수 없는 작품(07), 산문(08), 특정 형식으로 제한되지 않은 작품(09) 등의 하위 형식을 결합한다.

#### (3) 2인 이상의 작가와 작품

2인 이상의 작가와 작품의 경우에도 일반적인 패싯(8 + 언어 + 형식 + 시대)이 적용되지만 2개국 이상 문학의 전집이나 비평(3.2.2.2 참조)과 개별문학에서 2인 이상의 작가와 작품에 대한 패싯 구조가 다르며, 특정 형식을 규정할 수 없는 전집이나 비평의 경우에는 이것이 형식의 위치에 표현된다.

#### (4) 각국 문학의 전집이나 비평

각국 문학에 형식, 시대, 특성/테마/사람 패싯이 있는 전집이나 비평은 패싯의 수에 따라 그 구조를 달리한다.

① 형식, 시대, 특성/테마/사람 패싯 중 하나의 패싯만이 적용되는 전집이나 비평

가) 형식 패싯이 적용되는 전집이나 비평

8 + 언어 + 형식 + 0 또는 00 + 8/9

한국 서정시 비평 895.7103209

8(문학) + 957(한국어) + 1(시) + 032(서정시) + 0 + 9(비평)

나) 시대 패싯이 적용되는 전집이나 비평

8 + 언어 + 08/09 + 00 + 시대

20세기 영국문학전집 820.80091

8(문학) + 2(영어) + 08(전집) + 00 + 91(20세기)

다) 특성/테마/사람 패싯이 적용되는 전집이나 비평

8 + 언어 + 08 + 0 + 특성/테마 사람

낭만주의 영국문학전집 820.80145

8(문학) + 2(영어) + 08(전집) + 0 + 145(낭만주의)

위의 구조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국 문학에 특정 문학형식이 있는 전집이나 비평과 시대 패싯이나 특성/테마/사람의 패싯중 하나가 있을 경우의 패싯 구조는 다르다. 문학형식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전집이나 비평이 마지막 패싯으로 사용되지만, 시대나 특성/테마/사람의 패싯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전집이나 비평 다음에 시대나 특성/테마/형식/ 패싯이 온다.

따라서 ① 8 + 언어 + 형식 + 08 또는 09 ② 8 + 언어 + 08 또는 09 + 시대나 특성/테마 /사람으로 요약할 수 있다.

② 형식, 시대, 특성/테마/사람 패싯중 두 가지 패싯이 있는 전집이나 비평

가) 형식과 시대가 있는 전집이나 비평

8 + 언어 + 형식 + 시대 + 0 + 8/9

20세기 불란서 시전집 841.9108

8(문학) + 4(불란서어) + 1(시) + 91(시대) + 0 + 8(전집)

나) 형식과 특성/테마/사람 패싯이 있는 전집

8 + 언어 + 형식 + 00 + 8 + 0 + 특성/테마/사람

영국 고전주의 시 문학전집 820.080142

8(문학) + 2(영어) + 00 + 8(전집) + 0 + 142(고전주의)

다) 형식과 특성/테마/사람 패싯이 있는 비평

8 + 언어 + 형식 + 00 + 9 + 특성/테마/사람

10대를 위한 한국 회곡 895.720099283

8(문학) + 957(한국어) + 2(회곡) + 00 + 9(비평) + 9283(사람, 십대)

라) 시대와 특성/테마/사람 패싯이 있는 전집이나 비평

## 26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제30권 제3호)

8 + 언어 + 08 + 0 + 특성/테마/사람 + 09 + 시대(Table 1)

조선시대 한성부를 다룬 한국 문학전집 895.7080325190903

8(문학) + 957(한국어) + 08(전집) + 0 + 32+519(한성부)

+ 09(표준구분) + 03(조선시대; Table 1의 기호)

따라서 위의 구조는 ① 8 + 언어 + 형식 + 시대 + 08 또는 09, ② 8 + 언어 + 형식 + 08 또는 09 + 특성/테마/사람, ③ 8 + 언어 + 08 또는 09 + 특성/테마/사람 + 09 + 시대로 정리할 수 있다.

### ③ 모든 패션이 적용되는 전집이나 비평

형식과 시대, 특성/테마/사람이 모두 적용되는 전집이나 비평의 패션 구조는 다음과 같다.

8 + 언어 + 형식 + 시대 + 0 + 8 + 0 + 특성/테마/사람

계절을 묘사한 20세기 불란서 시전집 841.9108033

8(문학) + 4(불란서어) + 1(시) + 91(20세기)+0+8(집)+0+33(계절; 특성)

## 4) 문학의 패션구조 종합

문학에서는 기본적으로 언어와 형식, 시대, 특징/테마/사람을 패션으로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의 작품과 2인 이상의 작품으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 (1) 개인의 작품

8 + 언어 + 형식 + 시대

### (2) 2인 이상의 작가와 작품

가) 문학 전집이나 비평(언어 패션이 없는)

① 808.8 또는 809 + 형식 + 시대

② 808.8 또는 809 + 형식 + 특성/테마/사람

③ 808.8 또는 809 + 특성/테마/사람

나) 각국 문학

8 + 언어 + 형식 + 시대

다) 각국 문학의 전집이나 비평

① 8 + 언어 + 형식 + 시대 + 08 또는 09 + 특성/테마/사람

② 8 + 언어 + 08 또는 09 + 시대나 특성/테마/사람

③ 8 + 언어 + 08 또는 09 + 특성/테마/사람 + 09 + 시대(Table1)

④ 8 + 언어 + 형식 + 08 또는 09 + 특성/테마/사람

## 5) 문학의 패싯 구조에 대한 논의

### (1) 언어 패싯 표현상의 혼란

문학에서 언어 패싯(1-8)은 현대어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 각 언어의 고대어와 어족에 해당하는 언어는 목 또는 하위 세목의 위치에 전개되어 있다. 따라서 다음의 예와 같이 패싯의 구분에서 혼란을 줄 수 있다.

예 829 고대 영문학(앵글로 색손)

839 기타 게르만문학(튜토닉)

839.31 네덜란드문학

또한 기타 언어나 어족의 문학(890)에서도 9의 의미가 언어를 표현보다는 ‘기타’의 의미가 더 강하고, 여기에 포함된 어족들이 언어 패싯의 전개에 따라 상이한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 (2) 전집(08)과 비평(09)의 사용

상이한 언어로 쓰여진 둘 이상의 문학작품은 808과 809로 전개되는데, 이 경우 언어 패싯을 표현할 수 없다. 그리고 전집과 비평은 적용되는 패싯 구조가 경우에 따라 다른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일관된 패싯 구조를 적용하기 힘들다.

### (3) 개인작품

기타 언어로 저술된 개인 작품에 Table 3-A를 조합할 수 없을 경우에는 언어 패싯만 사용하고(예 : Mari 문학 895.56), 일반적으로 개인 저자들이 자기의 모국을 떠나 활동하는 경우에 쓰여진 언어가 다르기 때문이 각국 문학 아래 전개되어 있는 시대 패싯을 사용할 수 없을 경우가 있다. 이때에는 형식 패싯만 사용한다.

### (4) 형식 패싯

문학 형식을 결정할 때는 개인의 작품인지 2인 이상의 작품인지를 우선 판단하여 개인의 작품은 Table 3-A의 형식 패싯을, 2인 이상의 작품은 Table 3-B의 패싯을 사용한다. 그리고 Table 3-B의 형식 패싯을 구성하는 구분지중 수필(-4), 서한(-6), 유머(-7) 이외의 패싯에서는 형식의 유형이나 범위, 매체와 같은 하위 패싯을 전개하고 있다.

개인 작품에 대한 형식 패싯에서는 전집과 비평 패싯이 없다. 그러나 작가에 대한 전기나 비평, 개인 작품에 대한 비평의 경우에는 작가의 작품 형식으로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5) 형식 판단의 문제

문학 작품을 분류할 때 형식 패싯을 적용함으로 초래되는 문제점으로는 분류자의 입장에서

는 문학 형식에 대한 명확하고 실용적인 정의가 부족하기 때문에 적용이 어려울 뿐 아니라 상이한 형식이 혼재되어 있거나 불분명한 저작일 경우에는 취급하기가 곤란하고, 일부 형식은 문학형식에 속하는지가 의심스러운 경우가 있다. 이용자의 입장에서는 개인의 작품이 형식에 따라 분산되어 분류되고, 분류자가 작품의 형식을 자의적으로 결정함에 따라 혼란이 있을 수 있다(Chan 1971, 458). 문학 작품의 형식을 정확히 해석하기 어렵고, 더욱이 형식에 대한 판단이 달라지면 적용되는 패싯 구조도 달라질 수 있다.

#### (6) 시대 패싯

문학의 시대 패싯은 각국 문학에서 전개하고 있는 시대구분을 적용하고 있다. 그 주된 이유는 문학작품에 적용되는 시대구분의 기준이 각국마다 상이하고, 더욱이 동일 문학권내에서도 형식별로 시대구분을 달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DDC에서는 영국문학과 불란서문학, 스페인문학에 대해서는 도서관에 따라 시대 패싯을 적용할 수 있는 임의 규정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20세기 영문학 전집을 우리 나라 도서관의 관점에서 전개하면 820.80091이 아니라 820.8003이 된다. 이는 소장하고 있는 자료의 양에 따라 구분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시대 패싯이 필요한 경우에는 각국 문학에 전개된 기호를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 (7) 패싯 구조의 다양화

문학은 자료의 성격에 따라 패싯 구조가 다양하고 복잡하여 적용하기가 어렵다. 문학에 관한 일반 저작은 801-807에서 표준기호로 구분하고, 수사학에서는 언어보조표(Table 6)와 Table 3-B를 적용하며, 개인작품과 2인 이상의 작품에 대해서는 상이한 패싯 구조를 적용하며, 인종이나 국적에 따른 전개를 할 때 Table 3-C와 Table 5(인종, 민족, 국적 보조표)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 일관된 구조라고 하기 어렵다.

## IV. DDC와 CC의 비교

### 1. 생명과학의 비교

#### 1) 생명과학의 구조

DDC의 생명과학(570)에서는 생리학과 생화학, 동물의 생리기관, 식물의 구성요소와 생리체

계, 유전학과 진화, 생태학, 생물의 자연사, 미생물을 포괄하고 있다. CC(7판)에서는 기본주제를 1차 기본주제(main subject)와 2차 기본주제(non-main subject)로 구분하고 있는데(Satija 1989, 73-85), 생명과학에서는 기본주제인 생물학 이외에 세포학(GT), 미생물학(GV), 생물리학(GWC), 생화학(GX)과 같은 주제를 생물학과 구분하여 독립된 주제영역으로 취급하고 있다. CC에서 생물학의 패싯 공식은 G,[1P1];[1MP1];[1MMt1];[1E]로 G,[기관];[성질];[성분];[행위]로 되어 있고 생명과학의 기본 주제인 세포학, 미생물학, 생물리학, 생화학은 독립된 패싯 공식을 가지고 있다(Ranganathan 1987, 204-207).

DDC는 생명과학(570)에서 생물의 생리작용과 조직(571-575)의 주제 결합구조를 생리작용/생물로 하였기 때문에(Dewey 1996, 4 : 1114), 생리학과 생화학, 동식물의 생리기관을 생명과학의 하위 구분으로 하고 이들과 동일한 수준으로 유전학, 생태학, 생물의 자연사, 미생물, 균류, 조류를 전개하고 있으나 CC에서는 생물의 각 기관을 핵심 패싯으로 하고 생리작용은 성질 패싯으로 하고 있다.

동물의 생리기관을 DDC는 생물학의 하위 구분(목)으로 573에 배정하고 있으나 CC는 생물학(G)의 핵심 패싯(강의 위치)으로 규정하고 있고, DDC에서 목에 전개한 생리학(571)을 CC는 두 번 째 패싯으로 취급하고 있다. 또한 CC의 성분 패싯에 해당하는 개념들을 DDC에서는 생화학의 세목인 기타 화합물(572.5)에서 다루고 있으며, DDC에서 표준구분에 포함된 개념이 CC에서 행위 패싯으로 전개되고 있다. 예컨대 DDC의 생명과학에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0282(현미경)의 경우 CC에서는 현미경 검사(:18)와 현미경 사진(:185)으로 구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DDC와 CC의 분류체계는 독립된 주제영역으로 취급하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CC와 DDC의 주제 전개에 대한 단순 비교가 불가능하다. 즉 CC는 다섯 가지의 기본 범주(PMEST)에 따라 각 주제를 구분하고 이에 대한 패싯 공식을 제시하고 있으나 DDC는 지식의 구분을 9가지의 기호로 제한하여 전개하고 있기 때문에 DDC는 한계가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DDC 21판에서는 가능한 한 동일한 개념을 동일하게 표현하기 위하여 생명과학에서 동물과 식물에 대한 패싯 기호를 부여하여 패싯 구조를 표현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이는 DDC가 생물학에 관련된 주제를 한 곳에 집중시켜 이용시키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으나 패싯 구조상으로 볼 때는 두 체계가 서로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두 체계 사이의 비교는 근본적으로 불가능하지만 하위 주제의 전개에 대한 비교는 아래와 같이 할 수 있다.

## 2) 기본 주제의 비교

CC(7판)에서는 기본 주제를 1차 기본주제(main subject)와 2차 기본주제(non-main subject)

로 구분하고 있는데(Satija 1989, 73-85), 생명과학에서는 전술한 바와 같이 세포학, 생물리학, 생화학, 미생물학을 기본주제로 하고 이에 대한 패싯 공식을 제공하고 있는 것과 DDC에서 생화학(572)과 미생물(579)을 생명과학의 첫 번째 하위 주제(목)로 한 것은 CC의 방법을 도입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생리학, 생화학, 생태학 등의 하위 구분(세목)으로 전개되어 있는 주제들을 CC는 기본주제로 취급하고 있다. 다만 CC에서 일부 기본주제들은 패싯 공식과 하위 구분지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다.(Ranganathan 1987, 59)

DDC의 생리학(571), 생화학(572), 생태학(577) 등의 하위 구분(세목)으로 전개되어 있는 주제들이 CC에서는 독립된 주제로 마련되어 있는 것은 두 체계가 독립된 주제영역으로 취급하는 관점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현상은 생리학(571)의 하위 구분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DDC의 동물생리학(571.1), 식물생리학(571.2)를 CC는 동물과 식물의 하위 구분으로 하고 생리학의 하위 주제들을 CC에서는 성질(재료) 패싯과 독립된 기본주제로 취급하고 있다.

### 3) 생화학

DDC의 생화학(572)에서 하위구분지(세목)의 기호 1과 2는 동물과 식물을 의미하고, 3에서 8까지는 생화학의 관련주제를 전개하고 있다. CC에서는 기본주제(GX)로 전개되며 일반 생화학(GX1)에 대한 패싯 구조를 적용한다.

GX1,[1P1]; [1MP1]; [1MMt]      GX1,[기관];[성질]; [특성]

CC의 생화학은 주제의 발전과정에서 1차 기본주제의 수가 너무 많거나 다양성이 너무 복잡해서 더 전개할 필요가 있을 때 2차 기본주제로 일반생화학(GX1), 물리생화학(GX2), 분석 생화학(GX3)을 제시하고 있으나, 물리생화학과 분자생화학은 전개되어 있지 않고 일반 생화학만 전개하고 있다(Satija 1989, 160).

일반생화학(GX1)의 핵심 패싯인 기관은 동물, 식물, 의학을 주제구분으로 사용하며(새 호흡 기의 생화학은 GX1(K,96,4)), 성질 패싯은 의학의 재료 패싯[1MP]을 사용하며 성질 패싯(화학적 특성)은 일반 화학(E1)의 핵심[1P1] 패싯을 사용한다. DDC도 패싯기호 1과 2를 사용하여 동, 식물의 종류를 표현할 수 있으며, 기타 화합물(572.5)은 화학에서 세분된 기호를 사용하는 것은 CC의 예를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CC에서는 물리 생화학(GX2), 분석 생화학(GX3)을 전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단백질이나 효소 그리고 생화학적 유전을 결합할 수 없다.

그리고 DDC가 생화학의 일반주제(572.3)와 신진대사(572.4)의 기호 3과 4를 생명과학(570)의 생화학적 측면을 다룬 주제를 세분하는데 패싯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CC가 생화학에 패싯 공식을 부여하여 전개시키는 것과 같은 의미로 볼 수 있으나 두 체계의 패싯 구조는 다르다.

#### 4) 동물의 생리기관

동물의 각 기관에 대한 기호가 CC에서는 생물학(G)와 동물학(K)에서 적용하는 패싯이 다르다. 즉 생물학에서는 생물학의 기관 패싯에 따라 전개하지만 동물학에서는 동물의 종류(1P) 다음에 의학(L)에서의 기관 패싯(1P)으로 전개한다. 그러나 DDC는 동물의 기관(573)에 전개된 기호 다음에 동물의 종류로 구분하고 있다.

그러나 DDC가 동물과 식물의 각 기관의 생리학과 생화학적 측면을 전개하고자 할 때에는 CC와 마찬가지로 각 기관 다음에 생리학이나 생화학을 패싯으로 사용하도록 한 것은 DDC에서도 패싯 개념을 도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예컨대 DDC에서 생리기관의 종류 + 3 + 생리작용, 생리기관 + 4 + 생화학과 같은 패싯 구조를 보이는 것이 그 예이다.

##### 호흡기의 생리학

DDC : 573.2(호흡기) + 3(패싯 기호) + 59(지역생리학(571.59))

CC : G, 4(호흡기) + ;(재료 패싯 기호) + 3(생리학)

##### 호흡기에 필요한 산소

DDC : 573.2(호흡기) + 4(생화학) + 53(산소; 572.53)

CC : G, 4(호흡기) + ; (재료패싯기호) + 3(생리학) + ;(재료-재료 패싯 기호)  
+ 160(산소)

##### 포유동물 호흡기의 생리학

DDC : 573.2(호흡기) + 19(포유동물) + 3 + 59

CC : K, 97 + ; + 3

#### 5) 식물의 구성 요소

DDC에서는 식물의 기관(575)을 생명과학의 하위구분으로 전개하고 있으나 CC에서는 생명과학(G)에 전개하지 않고 식물학(I)의 두 번째 핵심 패싯으로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DDC의 순환, 영양저장, 배출(575.7), 증발(575.8), 동물과 유사한 생리작용(575.9)에 해당하는 기호를 CC는 의학의 재료 성질[1MP1] 패싯을 사용하고 있다.(Ranganathan 1987, 215)

DDC에서는 식물의 구성요소를 줄기, 뿌리, 잎, 꽃, 과실, 씨 등으로만 전개하고 있으나 CC에서는 각 요소를 상세히 전개하고 있다. 예컨대 기본 뿌리(I,131), 가지 뿌리(I, 137), 뿌리털(I,138)과 떡잎(I, 142), 줄기 끝(I,147), 성장점(I, 148) 등이다. 그리고 DDC는 식물의 구성요소를 식물학(580)에 관련된 자연사에서 적용(581.4)의 하위 구분으로도 전개하고 있기 때문에 혼란을 줄 수 있다.

## 6) 생태학

DDC의 생태학은 특수 생태조직 과정(577.1)과 생태학에 미치는 특수 요소(577.2)를 제외하고는 환경에 따른 생태학을 전개하고 있으나 CC는 생명과학의 재료-성질 패싯에 생태학에 관련된 하위 구분을 전개하고, G;55는 환경공통구분을 사용하여 전개하고 있다(Ranganathan 1987, 205). 예컨대 DDC에서 사막지대의 생태학은 본표에 전개된 577.54가 되지만 CC는 G;55에 사막(Uk2)를 결합하여 G;55Uk2가 된다. 그리고 CC의 본표상에는 전개되어 있지 않으나 기본주제로 비정상적인 생물학(G-9L), 해양 생물학(G-9Up), 열대생물학(G-9U3), 극지생물학(G-9U8)은 환경에 따른 생태학을 마련하고 있다.

## 7) 미생물

DDC에서 미생물은 미생물의 생리적인 면을 다루는 자연사(579.1)와 미생물의 종류(579.2-579.8)로 구분하고, 미생물의 종류를 전개할 때 자연사의 패싯을 결합하는 구조이지만, CC에서는 미생물의 기능적인 종류와 생물분류상의 종류를 핵심 패싯으로 하고 재료 패싯과 에너지 패싯을 조합하여 전개한다. CC의 미생물에 대한 패싯 공식은 GV,[1P1];[1MP1];[1E] GV,[미생물 조직기관];[특성];[행위]로 첫 번째 패싯은 미생물의 기능적인 기관과 종류로 구분하고 두 번째 패싯(특성)과 세 번째 패싯(에너지)은 생물학(G)의 재료-성질[1MP1] 패싯과 에너지[1E] 패싯을 공통으로 사용한다(Ranganathan 1987, 206). 따라서 생명과학(570)과 마찬가지로 두 체계의 구조가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DDC에서는 미생물의 종류를 상세하게 구분하고 있으나 CC는 5가지 종류만 구분하고 있다. 이는 CC에서 식물학과 동물학에 포함되는 미생물은 엽상식물, 원생식물, 해조류, 지의식물과 원생동물에 구분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CC에서는 미생물에 관련된 자료가 분산되지만 DDC는 미생물에 관련된 자료를 한 곳에서 검색할 수 있다.

CC에서는 미생물의 핵심 패싯을 기능상의 종류와 생물 분류에 따른 종류로 구분하고 있으나 DDC에서는 579.1에 미생물, 균류, 조류의 자연사에서 유전과 진화(579.13), 적응(579.14), 기타 비 분류학적 유형의 생물(571.16), 특수 환경에서의 생물의 특성(579.17)을 미생물(579.2-579.8)을 세분할 때 사용하고 있다. 이와 같이 두 체계에서 종류를 전개하는 구조가 다르며 DDC는 기능상의 종류를 표현할 수 없어 CC의 구조가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CC는 특정 미생물을 표현할 때 문자를 사용하고 있으나 DDC는 표상에 전개된 기호를 사용해야 하므로 특정 미생물을 표현하기 어렵다. 예컨대 살모네라 박테리아를 CC에서는 GV,6S, DDC에서는 579.344로 표현가능 하지만, 담배 모자익 바이러스는 CC에서는 GV,4T+M으로 표현할 수 있지만 DDC에서는 식물 바이러스인 579.28로 분류된다.

## 8) 세포 생물학(세포학)

DDC에서는 세포학을 생리학의 하위구분인 571.6에서 구분하고 있으나 CC에서는 독립된 기본주제로 취급하고 있다. 세포학의 패싯 구조는 GT,[부분];[성질];[행위]로서, 세포의 형태를 핵심 패싯으로 하여 중심부에서 주변부로 전개하고 있으며, 성질 패싯은 세포의 생리작용, 행위 패싯은 생물학(G)의 에너지 패싯을 사용하여 전개하고 있다. 그런데 DDC에서는 571.6에서 571.629는 미생물, 균류, 조류의 세포, 571.63은 세포의 해부, 형태학, 생물리학으로 전개하고 571.64-571.68까지는 세포의 형태에 따른 종류를 구분하고 있다. 따라서 DDC에서는 세포의 종류에 따른 생리작용을 전개할 수는 없으나 일반적인 세포의 생리작용은 571.63으로 전개할 수 있다.

## 9) 식물학과 동물학

DDC 식물학(580)의 패싯 구조는 식물학의 자연사(581), 식물의 생장특성(582) 그리고 식물의 종류(583-588)로 전개하고 동물학은 동물학의 자연사(591)와 동물의 종류( 592-599)로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CC는 다음의 패싯 공식을 사용한다.

I(or)K,[1P1],[1P2],[1Mp1];[1MMt]:[1E]

I(or)K,[종],[기관];[성질];[MP의 유형];[행위]

CC에서 첫 번째 핵심 패싯은 종(種)에 따른 구분으로 식물학과 동물학에는 각 생명체의 종류(I와 K에 전개됨)를 전개하고, 두 번째 핵심 패싯은 기관 패싯으로 동물학은 의학의 핵심 [1P1] 패싯을, 식물학은 구성요소를 사용한다. 그리고 재료 성질 패싯은 다음과 같이 사용하고 있다.

- ① 일반(1)은 생물학 [1MP1]의 패싯 기호 1을 적용한다.
- ② 기관(2-4)은 식물학에서는 생물학의 [1MP1]의 2-4를 적용하고, 동물학에서는 의학의 [1MP1]을 기호 2-4를 적용한다.
- ③ 5(생태학)은 생물학의 [1MP1]의 5를 적용한다.
- ④ 6(유전학)은 생물학의 [1MP1]의 6을 적용한다.
- ⑤ 7(성장)은 의학의 [1MP1]의 7을 적용한다.

그리고 재료-재료 패싯(재료의 유형)은 화학의 일반화학(E1)의 핵심[1P1] 패싯을 적용하며 행위 패싯은 생물학의 행위 패싯을 적용한다.

그러나 DDC는 식물과 동물의 종류를 우선하고 다음에 식물과 동물의 자연사에 해당하는 기호를 결합하고, 식물과 동물의 생리작용과 구조는 생명과학의 하위 주제(571-575)로 모아도록 하고 있으므로 두 체계의 구조가 다르나, 식물의 자연사(581)에 전개된 하위구분을 사용할 때는 두 체계의 구조가 같은 경우도 있다. 예컨대 단엽식물의 유전과 관련된 자료는 DDC는

584.135(584(단엽식물) + 1 + 35(유전)의 구조이며 CC는 I,7;6(I, 7(단엽식물) ; 6(유전))으로 같은 구조를 보인다.

### (1) 식물과 동물의 종류

DDC와 CC의 식물과 동물의 종류에 대한 전개를 CC는 식물과 동물의 종류의 배열을 유용한 순서의 규범중 진화순에 따라 상향식으로 열거하고 있으나, DDC는 동물은 하향식으로 배열하고 식물은 상향식으로 배열하고 있는 것이 다른 점이다.

### (2) 동물학과 식물학의 패싯 구조 비교

동물학과 식물학의 패싯 구조를 비교하면 CC에서는 동물학에 관련되는 주제는 동물학(K) 아래에, 식물에 관련되는 주제는 식물학(I)의 하위 구분으로 모이지만 DDC는 생리학과 동물학, 생리학과 식물학으로 분산된다. 따라서 DDC의 동물학(590)과 식물학(580)에서는 동물의 종류, 식물의 종류에 따른 전개와 이들을 동물의 자연사(591)의 하위구분과 식물의 자연사(581)의 하위구분에 따라 전개 할 수 있다.

## 2. 문학의 비교

일반적으로 자료는 그 주제에 따라 분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문학작품은 주제 대신 저작물에 사용된 언어나 문학형식, 시대에 따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외에도 비평, 전집, 특성, 주제, 저자 등을 패싯으로 적용하고 있어 이들 패싯이 적용되는 작품일 경우에는 복잡한 패싯 구조를 가질 수 있다.

DDC에서 문학의 801-807은 표준구분을 적용하고 808은 수사학(808.1-808.7)과 두 가지 이상의 상이한 형식의 문학전집(808.8), 문학사, 비평, 연구(809)로 전개되어 있으며, 810-899는 언어를 패싯으로 적용한 각국 문학을 전개하고 있다(Dewey 1996, 2 : 737-738). 언어로 구분된 각국 문학은 다시 형식 패싯으로 구분되고, 여기에 시대나 특성/테마/사람 패싯을 조합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CC에서는 기본주제(O)에 [언어],[형식][작가],[작품] 패싯을 적용하며, 하나의 출현 회차 안에 4개의 핵심 패싯 수준을 가진 것은 문학에서만 볼 수 있다.

### 1) 언어패싯

언어는 문학의 핵심 패싯으로서 DDC에서는 810-890로 전개하고 있는데 1-8까지는 현대 언

어를 기준으로 각국 언어로 구분하고 있으나, 각 언어권에 해당되는 고대어와 어족은 9로 전개하고 있으며(예 : 829는 고대 영어나 어족), 81-88에 전개된 언어 이외의 언어는 십진분류법의 기호체계에 따른 한계를 반영하여 모두 기타언어문학(890)으로 배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주제(890)에서 언어는 기호형식상 세목의 위치에 놓이게 되어 언어와 형식 패싯을 구분하기가 어렵고 따라서 기호상으로는 일관성을 발견하기 어렵다.

또한 2개 국어 이상의 문학전집(808.8)과 비평(809)에서는 언어 패싯을 표현할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

한편 CC에서는 문학에 공통구분지인 언어구분기호를 적용한다. CC의 언어구분은 2개 국어 이상일 경우에는 0Z의 기호를 사용하고, 인도-유럽어계(1), 셈어(2), 드라비다어(3), 아시아 지역 언어(4), 유럽 지역 언어(5), 아프리카 지역 언어(6), 아메리카 지역 언어(7), 오스트랄리아 지역 언어(8), 인공언어(99A)로 구분되는데 기호 4부터 8까지는 공통 공간구분(지역)에 따라 전개하는 것은 DDC에서 작품의 국가를 기준으로 구분하는 것과 같은 의미로 볼 수 있다.

DDC와 CC 모두 언어 패싯을 위한 기호를 가지고 있으나, DDC에서는 공통구분을 사용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구분해 놓아 각국의 언어를 나타내는 패싯 기호와 언어 공통구분과 중복되는 부분을 볼 수 있으므로 동음어의 규범을 위반하고 있다. 그리고 CC에서는 복합언어에 대하여 구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형태의 언어도 모두 기호화 할 수 있는 반면 DDC는 복합언어의 표현이 불가능하다.

## 2) 형식패싯

문학의 두 번째 패싯은 문학형식으로서, DDC에서는 작가의 수에 따라 문학 형식의 적용 패싯을 달리하고 있다. 즉 개인작품인 경우에는 Table 3-A의 형식 패싯을, 2인 이상의 작품인 경우에는 Table 3-B의 패싯을 적용한다. 그리고 Table 3-B의 문학 형식 패싯에서는 형식의 유형, 범위, 매체 등의 하위 패싯을 전개하고 있다.

CC에서도 형식 패싯을 사용하는데 이 패싯은 CC의 어학의 [1P2]의 7(작문의 형식)에서도 사용된다.

DDC와 CC에서 적용하는 형식 패싯은 거의 동일한 형태로 전개되고 있으며, 두 체계가 형식 패싯의 하위 패싯을 시, 회곡, 소설에 부여하고 있는 것은 동일하나 CC에서는 시에 대한 하위 패싯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어 회곡의 경우 DDC에서는 매체에 따른 종류를 하위 패싯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CC는 시의 하위 형식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매체에 따른 표현을 할 수 없다.

### 3) DDC의 시대 패싯과 CC의 작가 패싯

문학의 세 번째 패싯으로 DDC에서는 시대 패싯을 사용하지만 CC에서는 작가 패싯을 사용하고 있다.

DDC에서 시대구분을 하기 위해서는 본표의 각국 문학(810-890)아래 전개되어 있는 패싯을 사용하고, 2개 국어 이상의 문학 작품인 경우에는 표준구분의 시대기호를 적용한다. 그러나 CC는 작가 패싯에 별도의 하위 패싯이 제시되지 않고 작가의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연대구분 기호(CD)를 사용하므로 일관성이 있다. CC에서 언어, 형식 패싯 다음에 작가 패싯을 사용한 이유는 언어와 형식이 동일한 경우에 구분할 수 있는 특성은 작가로 생각하고, 작가를 식별할 수 있는 특성은 저자명의 알파벳순 배열과 연대로서, 저자의 출생연도는 자연적인 것이므로 저자의 출생 연도를 기준으로 하였다(Ranganathan 1987, 248).

CC의 작가 패싯은 도서기호(저자 시대순)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즉 작가의 출생 연도를 기준으로 한 것은 동일 저자의 작품이 한 곳에 모일 수 있는 장점과 작가에 따라 시대순으로 배열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DDC의 경우는 작품이 발표된 시대를 기준으로 시대 기호가 부여됨으로 CC의 시대순 배열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으나 동일 작가의 작품을 한곳에 모을 수 없다. 그러나 DDC에서는 임의 규정을 사용하여 문헌의 소장 양에 따라 간단한 기호를 부여할 수 있으므로 편리하다고 할 수 있다.

### 4) 작품 패싯

DDC에서는 작품 패싯을 적용하지 않고 있으나 CC에서는 동일 작가의 작품을 순서 있게 배열할 수 있는 작품 패싯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DDC는 이 패싯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동일 작가의 작품을 발표된 순서대로 배열할 수는 없으나 도서기호를 사용하여 서명의 자모 순으로 배열할 수 있다. 이것은 CC에서 작품명의 문자구분을 통해서 작품 패싯을 표현하는 것과 같은 의미로 볼 수 있다.

CC는 동일 작가의 작품을 유용한 순서의 원리에 따라 발표된 순서로 배열될 수 있도록 작품명의 두문자를 사용하거나 숫자기호를 부여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Ranganathan 1987, 249)

### 5) 특성/테마/사람 패싯

DDC의 Table 3-C에 전개되어 있는 이 패싯은 808, 809 및 Table 3-B과 관련하여 사용되는 패싯으로서, 복합적인 개념을 가진 문학 작품을 분류하기 위한 것이다. 이것은 다면적인 성격을 지닌 문학 작품을 분류하기 위한 것으로 그 유용성을 인정할 수 있다.

CC에서는 이와 같은 패싯이 제시되어 있지 않으나, 공간과 시간 패싯, 그리고 한정어와 상 관계를 사용하여 작품이 지닌 특성이나 내용을 표현하고 있다.

### 6) 특정 문학형식 이외의 형식

DDC는 특정 문학형식이 없이 서술 형식과 서지 형식만 있는 작품을 위해 표준구분의 기호 -08과 -09를 전집과 비평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 기호들은 문학형식이 있을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어 문학 전집이나 비평 형식을 나타내는데 매우 복잡한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CC는 모든 주제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ACI를 준비하여 문학에서도 다른 주제와 마찬가지로 합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ACI(Anteriorising common isolate)와 PCI(Posterising common isolates)는 기본범주에 해당되지 않는 공통구분자로 DDC의 표준구분과 같은 성격을 지니고 있으나, ACI의 하위 패싯을 결합할 수 있는 패싯 공식을 가진 경우도 있어 주제구분, 지리구 분, 연대구분이 가능하다.

## 3. DDC에서 수용해야 할 요소

본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은 열거식 분류표에서 패싯 구조의 도입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DDC 21판의 생명과학과 문학의 패싯 구조를 분석하였으며, 이를 CC와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수용해야 할 요소로 제안한다.

### 1) 기본주제의 확장방안

DDC의 기호체계로 인해 동일 수준의 주제를 9가지로 한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제로 기본주제의 전개가 합리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CC에서는 전통적인 주제와 새로 형성된 주류(35가지) 이외에 용해된 주제, 중류 정제된 주제, 그리고 규범적 구성요소, 특수 구성 요소, 시스템 구성요소, 환경적 구성요소에 의한 2차 기본주제, 통합된 기본주제 등으로 전개하고 있다(Satija 1989, 73-82).

CC에서는 생명과학에서 생물학 이외에 세포학, 생물리학, 생화학, 미생물학을 독립된 주제로 하고 있고, DDC에서도 생리학(571)과 생화학(572), 유전학(576), 생태학(577), 미생물(579)을 생명과학(570)의 하위 주제(목)로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DDC에서 생리학이나 생화학, 생태학 등의 하위주제(세목)로 전개되어 있는 주제(생물계측학, 생물리학, 생물역학, 조직학, 세포학 분자생물학, 생인공두뇌학)에 대해서 CC에서는 이를 독립된 주제영역으로 취급하고 있다.

DDC 21판에서 생명과학을 개정한 이유는 생물학(574)과 유전학, 진화(575)를 중심으로

전개된 주제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기호가 길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지만(Dewey 1996, 4 : 1111) 실질적으로 주제간의 불균형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 DDC에서 채용하고 있는 기호체계로 인해 전체 체계를 변환하기 전에는 실질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 할 수 없다.

DDC는 아라비아 숫자(0부터 9까지)만 사용하는 순수기호 체계로, 주제 전개에 한계가 있으므로 연구활동이 활발한 주제영역에서는 혼합기호의 도입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혼합기호 체계를 사용하게 되면 합리적으로 분류체계를 조직할 수 있고, 구분지의 수도 융통성 있게 조정 할 수 있어 기호의 전개능력이 크게 향상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DDC에서도 문자를 포함한 혼합기호의 도입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예컨대 CC에서 주제영역을 확장할 때 기본 주제에 영문자를 합성하여 전개하는 것과 같이, DDC에서도 기존의 십진체계의 골격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목의 위치에 영문자를 사용하게 되면 전개영역을 21개까지 확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기호 A는 문학과 어학에서 자국 우선을 위한 선택조항에 따라 제외하고, I, J, O, W는 사용을 유보하도록 한다). 따라서 목의 위치에 영문자를 사용하면 한 주제의 하위주제로 전개된 주제들이 독립적으로 취급되고 기존 분류체계의 세목에 해당되는 개념은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그리고 사용하지 않은 문자는 새로운 주제를 위해 유보할 수도 있다.

## 2) 패싯 개념의 도입

### (1) 패싯기호의 도입

DDC에서는 각 패싯을 식별하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조합의 결과 패싯의 의미를 구분하기 어렵다. 예컨대 문학에서 언어패싯이 두 자리 이상의 기호일 경우, 형식 패싯으로 잘못 인식될 우려가 있다. 즉 한국문학인 895.7을 기타 문학(89)의 강연(5)으로 잘못 생각할 수도 있다. 또한 단엽식물의 뿌리 575.5424는 57(생명과학) + 5(식물의 구성요소) + 5(뿌리와 잎) + 4(뿌리) + 2(식물의 종류) + 4(단엽식물)의 개념이 합성된 기호로 각 기호가 의미하는 내용이 서로 다른데 이 의미가 제대로 표현되지 않고 있다. 즉 기호간을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식별력이 떨어진다. 이를 CC로 표현하면 I(식물) + 88(단엽식물) + 13(뿌리)으로 I,88,13이 된다.

따라서 DDC에서도 패싯이 지닌 의미를 독립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특수한 구두점을 사용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예컨대 UDC에서 문학을 전개할 때 문학형식은 ‘-’으로 연결하여 언어와 문학을 구분하는 방법과 같은 맥락이다.

### (2) 패싯 의미의 통일

DDC의 생명과학에서 볼 수 있는 패싯 기호 1(동물)과 2(식물)를 생명과학 전 영역에 적용

하는 것은 장려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동일 개념을 표현하는 패싯 기호가 사용 영역에 따라 상이한 의미를 지니기 때문에 가능하면 패싯 기호의 의미를 동일하게 유지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생명과학에서 동물의 생리기관을 나타내는 573과 동물학의 590에서 3과 9는 각각 동물을 의미하므로 기호 1과 상충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패싯기호 1이 생명과학에서는 동물을 의미하지만 동물학에서는 자연사를 의미하는 패싯기호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구분 능력이 떨어진다. 이처럼 9가지의 기호만 가지고 특정 개념을 나타내는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DDC에서도 패싯 기호의 유형을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컨대 DDC 20판의 음악(780)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패싯의 유형을 보면 0은 표준구분의 의미로 일관되게 사용되고, 1은 음악의 일반원리와 형식을 의미하며 11-18까지는 781(음악의 일반 원리와 음악형식)에 전개된 기호를 782-788까지 동일한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예를 볼 수 있다.

따라서 비록 제한된 기호이지만 특정 주제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패싯유형의 개발이 가능함을 볼 수 있다.

### 3) 표준구분의 다양성 확보

DDC에서는 서지형식과 서술형식을 표준구분으로 표현하고 있으나 표준구분기호인 -0의 사용방식이 다양하고, 두 가지 이상의 복합형식을 표현하는 방법이 없다. 즉 본표상에서 '0'이 특정한 의미로 사용된 경우, '00'이나 '000'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Dewey 1996, 1:3), 또한 본표상에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특정 주제에 두 가지 이상의 표준구분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Dewey 1996, 4:908), 복합형식을 표현하는데 제한이 따른다. 예컨대 전기 전집의 경우는 전기로 분류하던가 전집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그런데 CC에서는 어떠한 형식도 ACI와 PCI를 사용하여 표현할 수 있다. 예컨대 국제세포학연맹(1972년 창설)과 국제세포연구 조직의 경우 DDC에서는 571.660601로 동일한 기호로 표현되지만, CC에서는 GT.1,g,9N7과 GT.1,g,9N6과 같이 설립연도로 구분할 수 있다. 생물학 초록지(미국, 1927)도 DDC에서는 570.16이나 016.57로 표현되나 CC에서는 G"a"m"73,N2로 창간연도(N2), 미국(73), 초록(a), 정기간행물(m)을 모두 기호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DDC에서도 표준구분을 두 번 이상 반복 사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UDC의 공통 보조 기호에서 채택하고 있는 방법을 사용할 것을 제안한다.

### 4) 의미 있는 기호의 사용

DDC에서는 기본적으로 기호 단위를 최소 3자리로 하기 때문에 기호 0이 의미 없이 사용되

는 경우가 있다. 즉 570에서 의미를 갖는 기호는 57이고 0은 의미 없는 기호이다. 경우에 따라 개별 주제의 종류를 의미하지만 표준구분에서도 0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패싯 구조가 복잡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DDC에서도 기호단위를 의미 있는 기호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보조표의 기호를 합성하는 경우에는 0이 패싯 기호로 사용되기 때문에 이들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UDC에서는 기호의 최소단위를 의미 있는 기호로 제한하기 때문에 DDC보다 패싯 구조가 간단하고 식별력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5) 상관계의 도입

DDC에서는 18판 이후부터 일부 상관계를 도입하고 있는데, 예컨대 표준구분의 -024(특정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는 주제의 편향관계를 표현하는 장치로 사용되지만, -024의 전개 위치가 기타(miscellany)와 인명록(-025)과 인접해 있어 상관계의 의미가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 다른 종류의 상관계는 때로는 본표상의 해당 주제에 열거되어 있으나 이를 일관되게 합성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있다(Foskett 1996, 177). 예컨대 바이러스와 박테리아의 차이라는 자료는 CC에서는 GV, 4&m6으로 바이러스(4), 박테리아(6) &m(차이관계)가 모두 표현되지만 DDC에서는 579.2(바이러스)나 579.3(박테리아) 두 가지 중 하나로 분류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DDC에서도 표준구분에 상 관계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으로 표준구분의 -04(특수 주제)의 하위구분으로 -042(일반관계), -042(편향관계), -044(비교관계), -045(차이관계), -046(도 구관계), -047(영향관계)로 전개하여 상관계를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 6) 문자의 사용

CC에서는 문학작품을 개별화하거나 인공에 의한 변종이나 바이러스, 박테리아를 구분하는데 문자를 사용하며, 기계나 지명을 구분할 때에도 이를 사용하고 있다. DDC에서는 특정 작가의 작품을 도서기호에서 구분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으나 이는 2차적인 방법이므로 분류 기호에서 이를 식별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예컨대 CC에서 셰익스피어의 작품을 구분할 때 문자를 사용하는 것과 같이, 개인 작품에 대해서 작품명에 따라 문자를 사용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기본적으로 DDC에서 패싯과 이를 표현하는 기호, 그리고 이를 합성하기 위한 방안에는 한계가 있음을 볼 수 있다. 합성주제를 표현하기 위한 방법이나 패싯 구조가 복잡하기 때문에 이를 단순하게 결합할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DDC에서 기존의 분류체계를 유지하면서 각종 패싯을 결합하기 위해서는 UDC에서 사용하고 있는 부가기호와 상관기호의 도입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 V. 결 론

현대의 분류체계는 열거식 체계와 조합식 체계로 구분하고 있다. 열거식 체계를 사용하는 주된 이유는 유용성이나 편리성 때문이지만 이 체계는 합성주제나 복합주제의 표현이 어렵고 자료에 내포되어 있는 주제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조합식 체계는 패싯 구조를 사용하여 모든 주제에 대한 분류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이 영향으로 기존의 열거식 체계도 조합식의 구조적 요소를 많이 수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본 연구는 열거식 체계가 조합식으로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고 앞으로의 변화를 전망해 보기 위하여, DDC의 생명과학과 문학분야의 패싯 구조를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1) DDC는 기존의 체계를 유지하는 범위에서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모든 분류이론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

2) DDC는 합성주제의 표현을 위한 패싯 공식이 없어 개개의 주제 아래에 지시된 합성 방법을 준수해야 하므로 패싯 구조가 복잡하다.

3) DDC의 생명과학은 패싯의 개념을 도입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조합할 수 있는 패싯 구조에 일관성이 없다. 다만 생명과학의 일부 영역에서 패싯 개념을 도입한 것은 주제 결합의 진전으로 평가 할 수 있으나 DDC에서는 아직까지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

4) 문학의 패싯 구조는 두 체계가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다만 언어 패싯은 DDC도 CC에서 언어 공통구분을 적용하는 방법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5) DDC는 개정을 통하여 전체적인 체계가 패싯 구조로 변화되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패싯 구조로 개정된 생명과학은 패싯 기호를 도입하여 생명과학 전체에 일관적으로 적용하고 있으나 기호의 의미가 이중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어 기호 안에서 구분 능력이 없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DDC의 패싯 구조가 패싯 분류표의 방법을 따르는데 아직은 구분의 항목이 제한되어 있어 하위 구분지의 배열에 무리가 따르며 기호의 길이가 길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DDC 편집정책위원회에서 패싯 기호를 사용하여 의미가 있는 요소를 확인하고, 통일된 기호를 사용하여 반복되는 내용을 표현하도록 하는 것은 정보검색의 효율을 기하려는 의도이지만 실질적으로 DDC 21판에서 패싯 구조를 확인하기 어렵다.

또한 DDC가 특정 개념을 공통적으로 표시하는 패싯 기호를 분류표가 개정될 때 반영하고, 기호 조합을 위한 합성 방법을 사용하고 있으나 모든 주제를 표현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발견 할 수 있었다.

따라서 미래의 분류체계가 모든 주제를 분류의 대상으로 할 때, 조합식 체계로 변화하는 것이 요구되며, DDC도 기존의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조합식 분류의 범주에 속하는 UDC에서 사용하는 방법의 도입을 심도있게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 참 고 문 헌

- 김태수. 1987. “콜론분류법에서의 상(相)관계”, *情報管理學會誌*, 제4권 제2호 : 47-61.
- 南台祐. 1991. LCC, CC, DDC의 語文學區分에 관한 研究. 박사학위논문, 中央大學校 大學院 文獻情報學科.
- 사공철 등편. 1996. 문헌정보학 용어사전. 서울 : 한국도서관협회.
- 정영미. 1997. 지식구조론. 현대정보관리학총서, 28. 서울 : 한국도서관협회.
- 鄭馳模. 1991. 文獻分類論. 현대정보관리학총서, 15. 서울 : 九美貿易.
- Aitchison, Jean and Alan Gilchrist. 1987. *Thesaurus construction : a Practical Manual*. 2nd ed. London : Aslib.
- Austin, Derek. 1984. PRECIS : A manual of concept analysis and subject indexing. London : British Library Bibliographic Services Division.
- Bliss, Henry Evelyn. 1939. *The Organization of Knowledge in Libraries*. 2nd ed. New York : Wilson.
- BSI. 1963. Guide to the Universal Decimal Classification(UDC) BS1000C.
- Buchanan, B. 1979. *Theory of Library Classification*. London : Clive Bingley.
- \_\_\_\_\_. 1989. 문헌분류이론. 정필모, 오동근 공역. 서울 : 구미무역.
- Chan, Lois Mai. 1971. "The form distinction in the 800 class of the Dewey Decimal Scheme," *Library Resources & Technical Services*. 15(4) : 458.
- \_\_\_\_\_. 1990. *Immroth's Guide to the Library of Congress Classification*. 4th ed. Englewood, Co. : Libraries Unlimited.
- Chan, Lois Mai, Richmond P. A. and Svenonius E., ed. 1985. *Theory of Subject Analysis : An introduction*. 2nd ed. New York : McGraw-Hill.
- Chan, Lois Mai, et. al. 1996. *Dewey Decimal Classification : a Practical Guide*. Albany, N. Y. : Forest Press
- Dalberg Ingetraut. 1995. "The future of Classification in Libraries and Networks, a Theoretical Point of View". *Cataloging & Classification Quarterly*. 21(2) : 23-35.
- Devadason, F. J. 1986 "Ranganathan's idea of facet analysis in action". In R. S. Razagopalan.

- Ranganathan's philosophy : Assesment, Impacet and Relevance. New Delhi : Vikas Publishing. 132-142.
- Dewey, Melvil. 1965. *Dewey Decimal Classification and Relative Index*. 17th ed. Lake Placid, N.Y. : Forest Press. 2 vols.
- \_\_\_\_\_. 1971. *Dewey Decimal Classification and Relative Index*. 18th ed. Lake Placid, N.Y. : Forest Press. 2 vols.
- \_\_\_\_\_. 1979. *Dewey Decimal Classification and Relative Index*. 19th ed. Edited under direction of Benjamin A. Custer. Albany, N.Y. : Forest Press. 3 vols.
- \_\_\_\_\_. 1989. *Dewey Decimal Classification and Relative Index*. 20th ed. Edited by John P. Comaromi, Julian Beall, Winton E. Matthews, Jr. and Gregory R. New. Albany, N.Y. : Forest Press. 4 vols.
- \_\_\_\_\_. 1996. *Dewey Decimal Classification and Relative Index*. 21th ed. Edited by Joan S. Mitchell, Julian Beall, Winton E. Matthews, Jr. and Gregory R. New. Albany, N.Y. : Forest Press. 4 vols.
- Foskett, A. C. 1996. *The Subject Approach to Information*. 5th ed. London : Library Association
- Gassel, Aimee. 1998. "Was Ranganathan a Yahoo ?" [1998. 7.21].  
(<http://internic.net/nic-support/nicnews/mar98/enduser.htm>).
- Godert, Winfried. 1991. "Facet classification in online retrieval,"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18(2) : 98-109.
- Ingwersen, Peter and Irene Wormell. 1992. "Ranganathan in the perspective of advanced information retrieval". *Libri*. 42 : 184-201.
- Iyer, Hemalata. 1995. *Classificatory Structures ; Concepts, Relations and Representation*. Frankfurt : Indeks Verlag.
- Khanna, J, K. 1986. *Colon classification ; enumerated and expanded schedules along with theoretical formulations*. New Delhi : Ess Ess Publications.
- Koch, Trangott. 1997. "The role of classification schemes in internet resources description and discovery".[1998.7.14].  
([http://www.ukoln.ac.kr.uk/metadata/desire/classification/class\\_su.htm](http://www.ukoln.ac.kr.uk/metadata/desire/classification/class_su.htm)).
- Kumar, Krishan. 1979. Theory of Classification. 2nd rev. ed. New Delhi : Vikas Publishing House.
- Langridge, D.W. 1989. *Subject analysis : principles and Procedures*. London : Bowker-Saur.
- Mapie, Amanda. 1995. "Faceted Access : A review of the future". [1998.7.10].  
([http://www.music.indiana.edu/tech\\_s/mia/facacc.rev](http://www.music.indiana.edu/tech_s/mia/facacc.rev)).

- Marcella, Rita and Robert Newton. 1994. *A New Manual of Classification*. Hampshire : Gower.
- Matthews, Geraldine Odessa, 1980. The Influence of Ranganathan Faceted Classification. Ph. D. diss. Case Western Reserve University.
- Mills, J. 1962. *A Modern Outline of Library Classification*. London : Chapman & Hall
- Mills, J. and Broughton, V. 1977-. *Bliss Bibliographic Classification*, Vol.1. *Introduction and Auxiliary Schedules; Other Classes*. London : Butterworth.
- Needham, C. D. 1971. *Organizing Knowledge in Libraries*. 2nd rev. ed. London : Andre Deutsch.
- Ranganathan, S. R. 1950. *Philosophy of Library Classification*. Bangalore : Sarada Ranganathan Endowment for Library Science.
- \_\_\_\_\_. 1960. *Colon Classification*. 6th ed. completely rev. New York : Asia Publishing.
- \_\_\_\_\_. 1962. *Elements of library of classification*. Bangalore : Sarada Ranganathan Endowment for Library Science.
- \_\_\_\_\_. 1967. *Prolegomena to Library Classification*. 3rd ed. New York : Asia Publishing House.
- \_\_\_\_\_. 1969. "Colon classification , edition 7. a Preview", *Library Science with a Slant to Documentation*, 6.
- \_\_\_\_\_. 1987. *Colon Classification*. 7th ed. Bangalore : Sarada Ranganathan Endowment for Library Science.
- Satija, M. P. 1989. *Colon Classification, 7th edition : a Practical Introduction*. - New York : Ess Publition.
- Taylor, Alan G. 1992. *Introduction to cataloging and classification*. 8th ed. Englewood, Co. : Library Unlimited.
- Thomas, Alan R. 1992. "Bliss Bibliographic Classification, 2nd Edition : principle features and applications," CCQ 15(4) : 3-17
- Vickery, B.C. 1966. *Faceted classification schemes*. Rutgers Series on Systems for the Intellectual Organization of Information. Vol. 5. Ed. Susan Artanti. New Brunswick, New Jersey : Graduate Schools of Library Services, Rutgers, The State University.
- \_\_\_\_\_. 1975. *Classification and Indexing in Science*. 3rd ed. London : Butterworths.
- Whitrow, Magda. 1983. "Historical Studies in Documentation : an eighteen-century Faceted -Classification system," *Journal of Documentation* 39 : 88-94.